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418호 COPY RIGHT 2024

Tuesday, November 4 2025 A

# 행정부 "SNAP, 11월 자금지원 받을 것"

## 비상금 46억5000만달러 판사 결정 따른 후속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두 명의 판사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라 는 판결을 내린 후, SNAP(보충영양지 원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 을할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연방 농무부(USDA)는 셧다운 기간 동안더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지급을 동결할 계획이었다.

SNAP는 국민 8명 중 1명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며, 국가 사회 안전망의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 로비용으로 매달 약 80억 달러가 소요 되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 지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부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해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 게 될지, 그리고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 는 직불카드에 얼마나 빨리 금액이 반 영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SNAP 카드 충전 절차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기

관과 공급업체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월 평균 수혜액은 보통 1인당 190 달러 정도다.

연방 정부는 비상 기금으로 46억

50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 혔는데,이는일반지원금의약절반을 충당하기에 알맞은 금액이다. 정부 셧 다운이 조만간 해결되지 않으면 기금 이 고갈되어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SNAP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비용을 제 외한 가구의 순소득이 연방 빈곤선을 초과하면 안 되는 데, 4인 가족 기준 연 간약3만2000달러이다.

작년 SNAP는 워싱턴을 비롯해 전 국의 약4200만 명을 지원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다.

앞서 지원 지연에 대한 소송이 이어 지자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래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적어도 부분 적으로라도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 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성한 기자

# 오늘은 버지니아 선거일 오전 6시~오후 7시

오늘(11/4)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투표 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가까운 투표 소를 찾아 지지 후보를 투표용지에 표 시하면 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겪은 지 1년 이 지났고, 의회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중간 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이 기 세를 얻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 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선거는 주지사 선거로, 현 공화당 부지사인 윈섬 얼-시어스와 민주당 전 하원의원인 애비게일 스팬 버거가 맞붙습니다. 주 부주지사와 법 무장관 자리도 경쟁이 예상된다.

11월 4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오후 7시 까지 줄을 선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넣 을 수 있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허용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 증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임시 투표용 지에 투표해야 한다. 임시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선거 후 금요일 정 오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해야 투표용지가 집계된다.

투표소의 투표용지 상단에는 공화 당 부지사 윈섬 얼-시어스와 민주당 전 미국 하원의원 애비게일 스팬버거의 이름이 기제돼 있다.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버지니아 주는 이번 가을에 처음으로 여성을 주 지사로 선출할 예정이다.

부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 가잘라 하쉬미와 공 화당 소속 라디오 진행자 존 레이드 중 에서 선택하게 된다

공화당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 가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변호사이자 전직 주 의원인 민주당 경쟁자 제이 존 스과 맞붙고 있다. 홍알벗 기자

# 여당발재판중지법,이대통령직접제동

# "나와 관련, 정쟁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게 해달라" 이 대통령, 핵심 참모진에 뜻 전해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 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 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 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 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 식화한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 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

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 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 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 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 했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 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 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 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 지만, 30분 뒤 강 실장이 나서 이 대통 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 통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 법'이라고 명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 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단 호한 뜻을 대통령이 당에 전달한 것"이 라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당에 야 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가 있 느냐"고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끝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 는 건지, 법원이 재개하면 추진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며

# 하루 만에 뒤집힌 여당 '국정안정법'

2일 오전 11시30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서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이달 말 처리도 가능"	
3일 오전 6시50분쯤	박 대변인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 협박한 국민의힘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 페이스북 글	
오전 7~9시	대통령실 정무라인, 민주당 지도부에 "대통령은 (재판중지법) 하지 말자는 생각	,
오전 9시30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서 "재판중지법 실익 없다" 결론	
오전 11시40분	박 대변인 긴급 회견 "대통령실 조율, 지도부 논의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 않기로	1"
오후 3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재판중지법 불필요	2"
오후 3시30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당에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한 건 대통령의 생각"	

"궤변을 해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요구했다.





실장의 설명이다.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워싱턴 세계선교축제

# World Mission Festival in Washington, USA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2007년 5월에 출발한 송웅호 선교사의 선교사역이 2025년 9월 23일 101차의 긴 선교여정을 은혜 중 마치게 되어 선교보고와 더불어 선교사역의 생생한 내용을 담은 "에벤에셀" 출판기념회로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울러 이름없이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열매를 거두고 있는 두 분 선교사의 생생한 간증을 든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포럼(Forums)을 통하여 21세기 선교의 바른 방향에 대한 주장을 듣고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년 11월 14일-15일

장소: 안나산기도원

**목적:** 목사 초청 만찬회 겸 선교포럼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관:** GMC/지구촌선교모임 (송웅호 선교사)

전화: 703-223-3986 (미국) / 010-6698-5809 (한국) \*11월 14일(금)과 15일(토)에 저녁식사를 하실 분들은

오후 6시 식사 시간을 지켜 주시고, 사전에 꼭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안나산 기도원 (김영창 원장) 전화: 301-874-2983 강사 소개: 송웅호 선교사, 정득채 선교사, 백영정 선교사





김영창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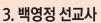
# 1. 송웅호 선교사

- Founder of GMC (지구촌선교모임)
- 16개국에서 101차의 선교사역을 마침
- 8권의 책을 만듬 (3권은 선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재)

# 2. 정득채 선교사

- 연세대 졸업,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 Chief CEO로 은퇴 (DUCOM Inc.- 1985년 설립)
- 비영리단체인 DYC Foundation (2015년 설립)을 통하여 선교사 지원, 신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교회와 선교센터 건립 후원

강사 소개



- 강서대 사회복지과 졸업, 안양신학교 (M. Div.)
- 한국에서 15년간 부교역자로 봉사
- 중국선교 20년. 중국, 러시아농촌, 북한사역 4년



# △ ○ 종합

# 내년 오바마 보험료 인상에 서민들 '한숨 푹푹'

보조금 없으면 20-40% 올라 접수시작…1월15일마감

연방정부 폐쇄로 말미암아 보조금 연 장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내년 도보험료 인상폭이 최근 몇년 중가장 클 것으로 보여져 서민들의 고민이 깊 어가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FF)는 2026년도 평균 보험료가 대략 20% 이상 뛸 것으 로 내다보며,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은 두 배 이상 늘 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 가입자는 각 주의 마켓플레이 스를 통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 을수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마바케어(Affordable Care Act)의 2026년도 보험 플랜 등록이 지 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월15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2026년1월1일부터 보험 혜택 을 받을려면 12월15일 이전에 가입을 마쳐야 한다. 그 이후 가입자는 2026년



2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 의가 요구된다.

한인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는 오 마바케어 플랜은 각 주별 마켓플레이 스나 연방정부 웹사이트 healthcare.

gov를 통해 가입 또는 확인이 가능한 데, 가입자들은 연소득을 비롯해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적 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바이든 행정 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확대했 는 데, 이 조항은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의회에서 연장 조 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보 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앞서 연방의회예산국(CBO)은 "강

화된 보험료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만 무보험자가 220만명 늘고, 2034년까지 매년 평균 3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최모 씨는 "지 난 몇 년 간 저렴한 오바마케어의 도움 을 많이 받았는 데, 보험료가 오르면 감당할 수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

김성한 기자

# 셧다운에 미국공항 마비 우려…교통장관 "미국공역 닫아야 할수도"

## 항공관제사 인력난 셧다운으로 심화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 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고있다.

국토가 넓고 주요 도시가 동서남북 산재한 미국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이 동에도 비행편 이용이 보편적이어서 항공 시스템이 멈출 경우 극심한 혼란 이 예상된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air space)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



미국 항공지연 급증…셧다운 인한 관제사 무급근무 영향 가능성

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 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리 스크가 현저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을 넘기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

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항공관제사 1만3천명 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 로 일하고 있다. FAA에 따르면 이마저 도 목표 인력 규모보다 3천500명 정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관제사가 초과 근무나 주6일 근무를 해왔다.

게다가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 지면서 미국의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르고, 승객들은 긴 대 기 시간에 고통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천200편이 지 연되고 500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 했는데, 그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전했다.

관제사 부족에 따른 지연·취소는 주

말인 1일(4천600편 지연, 173편 취소) 과 2일(5천800편 지연, 244편 취소)에 도이어졌다

더피 장관은 휴가를 내고 자리를 뜬 관제사들을 해고할 계획은 없다면서 "그들 모두에게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 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 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 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CEO 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행객 수요가 몰 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운항의 심각한 차 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 신이 전했다.

# 한미 국방장관, 오늘 핵잠·전작권 전환 등 논의…SCM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 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 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폭 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 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 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한 군 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 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 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의 연료 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 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 목한 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가 필

우리 정부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기 때 문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 모든 관련 시설을 새로 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삼수함 = 늘어야 하므로 삼수함 건소 실석이 있

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 해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 로 내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 (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 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 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차고 2. 방 3. 화 3½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정하고 마지 막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선결조건 을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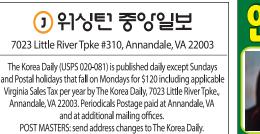
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 망이다. 한국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

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하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는 2006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이

차고 2, 방 3, 화 2.2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 이화여대 음대 100주년 연주회 열려

워싱턴DC케네디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이 창립 100 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 연주회가 지 난 25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 테라스 극장에서 열렸다. '

'Giving Thanks'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주최측은 미국 선교사 앨 리스 아펜젤러 초대 총장 등 이화의 발 전을 위해 힘쓴 선구자들의 노고에 대 한 깊은 감사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케네디센터 공연은 펜실베이니아 랭커 스터 감리교회, 뉴욕 카네기홀 공연에 이은 이화 음악대학 100주년 월드투어 의 찬란한 대미를 완성했다.

교수진, 동창 등 80여 명의 연주자가 피아노 앙상블, 첼로 앙상블 등 클래 식과 한국 전통 음악을 결합해 이화음 악 100년의 발자취를 음악으로 풀어냈 다. 피날레는 안현정 작곡가의 'Ewha Fantasy'로 특히 이화의 교수, 재학생, 동창, 직원이 모두 한 무대에 올라 박 수갈채를 받았다.

이화 음악대학 측은 "예술의전당



창립 100주년을 맞은 이화여대 동문들이 지난 25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 모여 공연을 펼치고 있다.

100주년 기념 300여 명 연주와 같은 대 형 무대에서도 교수·학생·동창 '3요소' 만무대에 섰지만, 이번 공연은 이화 공 동체 전체가 함께 서는 첫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곡의 마지막에 교가 가사 "성인이 이름하여 이화라셨다"가 울려 퍼질 때, 고종의 손녀이자 이화 동창인 이해경 선생이 현장에 함께했다.

제1회 이화 음악인상을 수상한 이해 경 선생은 "후배들이 발전된 이화의 교 육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 화여대 음악대학과 이화 동창회 워싱 턴 DC 지회는 National Children's Hospital을 방문해 한 시간 동안 특별 공연을 펼치는 한편, 지난 기념행사 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 번 방문 공연은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 와 따뜻한 가치를 나누겠다는 'Giving Thanks' 정신을 실천한 자리였다는

## 기자 수첩

# '버지니아선거날'…귀중한한표행사하자

## 2025년 버지니아 지방선거 날이 밝았다.

올해는 버지니아 지역 총선에 걸맞 게 주지사를 비롯해 부주지사, 법무 장관, 그리고 주 하원의원 전원 등 주요 직책이 포함돼 있어 아주 중요 한선거라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엊그제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곳곳 을 누비며 안간힘을 쏟았지만, 정작 정치권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반 응은 무덤덤한데 이는 치솟는 물가 와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반영된 듯하다.

특히 한인사회는 늘 그래왔 듯이 이번에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모 습이 강하게 비춰져 안타까움을 자 아냈다. 정치와 경제는 '바늘과 실' 이라는 말처럼 한인커뮤니티의 파 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가 우선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4일) 버지니아 선거일 한인 유권자 모두가 정해진 각 지역의 투 표장으로 가야한다. 소중한 한 표로 한인이 무서운 존재임을 알려야 함 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 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선거는 오전 6 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 시 간을 내면 한인 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다. 투표 장에 가면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비전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딱히 정당 과 사상, 그리고 진영에 얽매이지 말 고 누가 더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인

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선거를 통해 한인이 정치권 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기에 투 표를 꼭 해야한다. 이는 우리의 한표 한표가 한인사회 미래를 바꿀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내 의무는 소홀히 하 면서 나의 권리만을 찾겠다는 생각 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권익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 서면 어떨까 싶다.

내가던진한표로보다살기좋고 희망이 넘치고 활기찬 버지니아와 한인사회가 건설되길 간절히 기대 해본다.

김성한 기자

# 신임회장에 박희숙 목사 선출

## 55대 워싱턴한인교역자 정기총회

제 55대 워싱턴한인교역자회 정기총회 가 11월 2일 첸틸리 소재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열렸다. 회원 목회 자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박희 숙목사(한길선교교회)가 선출되었다.

1부 예배는 54대 회장 양경욱 목사 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박희숙 목사 의 대표기도, 53대 회장 이택래 목사의 설교, 52대 회장 김찬영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2부 총회순서에서는 54대 회장 양경 욱 목사의 사회로 순서지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동의, 재청을 받아 신입회원 소개를 시작으로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를 마친 후 새 임원



워싱턴한인교역자회는 2일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선거를 위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신임 회장단이 결성되었다.

신임 회장단 임원으로는 회장 박희 숙목사를 비롯해 부회장 박지나 목사, 총무 이경희 목사, 서기 안현우 목사, 회계 안상도목사가 인준됐다.

신구 임원교체후 박희숙 목사가 회 의를 주도하면서 안건으로 워싱턴 지

역 교역자회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과 목사회 합창단을 구성하자는 것이 안 건으로 체택되었다.

한편, 워싱턴지역교역자회의 연례 행사인 크리스마스 송년예배는 12월 14일 위싱턴비젼교회(김찬영목사시 무) 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홍알벗 기자

FDIC (1)

홍알벗 기자

# 메릴랜드 몽고메리, 연례 조달 박람회 개최

## 5일 실버스프링 시빅빌딩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조달청은 오는 5일 실버스프링 시빅빌딩에어 연 례 조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시30 분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사에서 는 '지역 및 재향군인 소유 사업체 인 증'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소유 기 업 인증 기관 패널 토론'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조달 기회 패널 토론도 포함되어, 참가자들은 지역의 미래 계약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사전 등록은 https://www. eventbrite.com/e/procurement-fairtickets-1708053697589?aff=chambers 에서 하면 되고, 또한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카운티 관계자는 "조달 박람회 행사 는 소규모, 소수민족, 재향군인, 여성 소유 기업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 며 기업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 부했다. 김성한 기자







☑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 스마트보험이 무료 세미나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가 직접 A부터 Z까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지금 바로 10/1, 10/8, 10/15, 10/22, 메디케어 세미나 스마트보험 무료 세미나 신청하기 10/29, 11/5, 11/12, 11/19 오바마케어 세미나 12/3,12/10,12/17



스마트보험 사무실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7535 Little River TPKE #204 Annandale, VA 22003



# 세미나 내용

메디케어/오바마케어 기본 내용 및 나에게 맞는 플랜 선택하기



# 참석 방법

전화/문자/이메일/QR 코드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 전화예약 703-639-0882

문자예약 703-745-5002

이메일 예약 agentsupport@solomonus.com



SCAN ME

# 34세 맘다니, 첫 무슬림 뉴욕시장 되나

미니지방선거뒤흔든 '맘다니 열풍' '임대료 동결' 맘다니 지지율 앞서 급진 좌파 논란에도 오바마 격려

오늘 뉴저지 주지사 등 190개 선거 트럼프 2기 첫 평가, 정치권 촉각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시장 등을 새로 뽑는 선거가 4일 치러진다. 이날 주지사, 시장, 학교 위원회, 판사 등 190개 이상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2기 트럼 프 행정부에 대한 첫 평가이자, 1년 뒤 실시될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다.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선 모두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 이고 있다. 버지니아에선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이 공 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뉴저지주에선 민주당 후보인 미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잭 치 터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에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우위를 점하며 접전 양상 이다. 뉴욕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무 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 욕주지사를 두자릿 수 격차로 따돌리 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으로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한 여론조사 최신 평균치를 보면 민주당 호감도는 33.9%로 공화당의 41%보다는 낮다. 1년 전 대선 참패 여파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미국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가 1일 뉴욕시 퀸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같은 날 뉴저지주 뉴어크시에서 미키 셰릴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 뉴욕시 맨해튼 커뮤니티 칼리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시장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막판 변수도 돌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 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농무부는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셧다운 여파로 해당 재원이 바닥났다는 이유에서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들은 셧

다운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집중 공략 하고 나섰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뉴저지·버지니아주 후보와 뉴욕시장 후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또 는 생활비 경감을 공약했다. 악시오스 는 "민주당은 경제와 생활비가 부동층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권자들도 후보를 뽑을 때 경제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15~20일 미국인 4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생활비 문제가 내년 11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28%), 이민 문제(14%), 범죄(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퇴임 후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저지·버지 니아주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역 시 변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급진 좌 파 성향의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 보에게 지난 1일 격려 전화를 했다. 34 세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동결, 무상버

스, 무상보육 등을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된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향후 미국 정 치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N은 3일 "이번 지방 선거는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이라 는, 서로 다르고 점점 더 적대적인 집단 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 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갈 수록 공화당과 민주당 우세 지역이 뚜 렷하게 나뉠 것이란 뜻이다. 위문회기자

# 헤그세스, 한국 오자마자 안규백과 JSA 찾았다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 〈미국 전쟁부 장관〉

한국 국방장관과 8년 만에 동행 "북한 마을 이렇게 가까운 줄 몰라" 오늘 SCM 참석, 이 대통령 예방도

취임 후 처음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그 자체로 북한과 주변국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알리는 행보지만,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지는 않았다.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4일 한·미 군 당국 간 최고 협의체인 제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함께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 (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을 시찰하는 등 1시간가량 머물렀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초소다.한·미국방장관이 JSA를찾

는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이 "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하는 것을 보고 상 당히 감명을 받았다. 공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 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 전했다.

또 "분단선이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계곡도 있고 숲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한국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마을을 보며 이 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도 했다는 것 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4일 SCM에선 동맹현안이 포괄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진전을 볼 여지도 있다. 이는 동맹의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우고,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은 중국 견제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변경하려는 미국의 기조와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다.

SCM에 앞서 양국 합참의장이 주 관하는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MCM)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 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 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공감"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SCM에 선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 서 논의된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 함 도입 문제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헤그 세스 장관은 SCM 이후 이재명 대통령 을 예방한다.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이유정 기자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자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전국 한인은행 총자산 500억불 돌파

# FDIC 보고 1~3분기 실적 분석

501억불…전년비 5.8% 성장 누적순익15곳중11곳증가 수익성 호조, 견조 성장세 기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개 분기에 걸쳐 전국 한인은행들이 자산·예금·대출에 한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 15개 한인은행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2025 년 3분기 실적보고서(Call Report)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은 전년(473억 6166만 달러) 대비 5.82%가 증가한 501 억1774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첫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표참조)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산을 늘 리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3개 분기에 저조했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 한 것으로 평가된다.

6.63% 늘어난 425억7334만 달러를 기 록했으며, 대출도 1년 전에 비해 6.0% 늘어나 사실상 400억 달러 시대를 눈 앞에 뒀다.

누적 순익 측면에서는 지난해 4개 은행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순익 감소를 기록했었지만, 올해는 4개 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이 순익 증가 를 이뤄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15개 은행의 전체 누적 수익은 2억 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견조 9416만 달러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0.34% 감소를 보였다.

> 남가주 한인은행 가운데서는 지난 해 3분기 8733만달러의 누적 순익을 거 둔 뱅크오브호프가 올해초 일부 손실 영향으로 3분기 누적 순익 3404만 달 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8%의 성장을 기 록하긴 했지만, 올해 2분기 회계상 손 실로 인해 분기 순익 2406만 달러를 기 록하면서 3개 분기 누적 순익도 예상보 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뱅크오브호프는 전 분기 대 은행 총 예금도 전년 동기 대비 비순이자수익과 대출잔액증가, 예금

**2025년 전국 한인은행 3분기 실적** (단위: \$1,000)

지역	은행명	시민			পাত			네걸			<b>サービビー</b>		
시작	71 E86		2024년	증감	2025년	2024년	증감	2025년	2024년	증감	2025년	2024년	증감
	뱅크오브호프	18, 501, 184	17, 349, 516	+6.6%	15, 849, 201	14, 751, 313	+7.4%	14, 586, 899	13, 617, 988	+7.1%	34, 044	87, 337	-61.0%
	한미은행	7, 811, 870	7, 678, 240	+1.7%	6, 772, 314	6, 416, 965	+5.5%	6,528,260	6, 257, 744	+4.3%	60,964	50, 932	+19.7%
캘리포니아	PCB뱅크	3, 362, 429	2,889,755	+16.4%	2, 923, 472	2, 468, 294	+18.5%	2, 752, 513	2, 466, 174	+11.6%	28,943	19,377	+49.4%
설디エ니아	오픈뱅크	2, 614, 517	2, 387, 601	+9.5%	2, 275, 653	2,066,214	+10.1%	2, 151, 217	1, 931, 007	+11.4%	19, 174	16, 626	+15.3%
	CBB뱅크	1,962,373	1, 770, 480	+10.8%	1, 666, 738	1, 448, 547	+15.1%	1, 272, 474	1, 222, 865	+4.1%	13, 885	17, 203	-19.3%
	US메트로뱅크	1, 566, 784	1, 386, 893	+13.0%	1, 384, 021	1, 215, 780	+13.8%	1, 222, 022	1, 114, 523	+9.6%	9, 194	6, 345	+44.9%
워싱턴	유니뱅크	394, 942	569, 457	-30,6%	344, 939	468, 495	-26.4%	301, 264	439, 233	-31.4%	-1, 494	-14, 444	+89.6%
	메트로시티뱅크	3, 626, 177	3, 558, 595	+1.9%	2,729,408	2, 752, 981	-0.9%	2,962,943	3, 090, 588	-4.1%	50,538	48, 428	+4.4%
조지아	퍼스트IC뱅크	1, 243, 029	1, 215, 681	+2.2%	917, 826	994, 454	-7.7%	1, 035, 940	964, 165	+7.4%	15, 456	18, 544	-16.7%
	프로미스원뱅크	822, 611	722, 572	+13.8%	741, 830	629, 061	+17.9%	609, 794	575,005	+6.1%	8,633	8,367	+3.2%
	우리아메리카	3, 985, 547	3, 968, 023	+0.4%	3, 421, 243	3, 428, 660	-0.2%	3, 126, 409	2, 931, 360	+6.7%	25, 839	19, 857	+30.1%
	신한아메리카	1, 904, 161	1, 743, 159	+9.2%	1, 594, 090	1, 494, 627	+6.6%	1, 612, 896	1, 469, 058	+9.8%	4,933	1, 546	+219.0%
	뉴뱅크	636, 375	667, 953	-4.7%	532,909	570, 410	-6.6%	420,806	392, 336	+7.3%	6,847	7, 126	-3.9%
	뉴밀레니엄뱅크	928, 709	895, 425	+3.7%	795, 034	778, 380	+2.1%	815, 527	770, 476	+5.8%	7,881	5, 916	+33.2%
뉴저지	하나은행USA	757,033	558, 310	+35.6%	624, 662	437, 539	+42.8%	469, 338	368, 243	+27.5%	9,328	2,006	+365.1%
	•										'		

비용 감소로 순이자 마진(2.89%)이 오 르는 효과를 얻었다.

올해 3개 분기에는 특히 한미은 행·PCB뱅크·US메트로뱅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성장 발판을 다졌다. 한미은행는 3분기 누적 순익에서 6000 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를 기록했다.

약진이 두드러졌던 PCB뱅크는 49.4%의 순익 성장을 일궜다. 예금과 대출의 고른 성장이 자산 16.4% 상승 의 밑받침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US메트로뱅크도 예금과 대출 등 고 른 성장을 바탕으로 누적 손익 44.9% 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오픈뱅크 역시 예금, 자산, 순익 등 분야에서 10% 이 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 둔화를 기록해온 CBB뱅 크는 3분기 누적 순익 감소(-19.3%)를 다시 맛봐야 했으며, 워싱턴의 유니뱅 크는 일부 손실을 보전했지만 마이너 스성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난해 컨설팅을 포함한 비용지출 을 감수했던 신한아메리카도 올해 3개

분기에는 부진을 털고 500만 달러에 가 까운 누적 순익으로 전년대비 219%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뉴저지 하나은행 USA는 예금과 대출이 모두 증가하면 서 분기 수익과 자산에서 3.5배가 넘는 성과를 누렸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비용 절 감과 대출 성장, 부실률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실적 개선 트렌드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 망했다. 최인성 기자

# 애플, 역대최고분기매출기록

## 지난 3분기 매출 1025억불 아이폰·서비스부문도최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은 지난 3분기(4~ 6월, 회계연도 4분기)에 매출 1025억 달 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였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 1022억 달 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77달러를 넘어섰다.

49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아이폰 부문 매출과 249억7000만 달러인 서비 스 부문(아이클라우드·애플뮤직 등)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팀 쿡 애플 CEO는 CNBC 방송에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상상



을 초월할 정도"라며 "다만 여러 모델 이 공급제약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 부문 매출액은 69억5000 만 달러였고 데스크톱·랩톱 등 맥 부 문은 87억2000만 달러, 애플워치·에어 팟·비전프로 등 기타 제품 부문은 90 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쿡 CEO는 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 세 없이 책정할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 다"며 "관세 부담은 매출총이익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튜브TV서 디즈니 채널 중단

## ABC·ESPN 등 시청 불가

TV 방송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기업 간 알력 다툼 속에 최대 인터넷 TV 서 비스인 유튜브TV에서 디즈니의 주요 채널이 모두 방송 중단되는 사태가 벌 어졌다.

유튜브TV는 지난달 31일 공지를 통 해 "오늘부터 디즈니 프로그램은 유튜

브TV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는 ABC, ESPN 등의 채널 시청이 불가능 해지며,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서 이 들네트워크의 녹화물을 볼 수 없게 되 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유튜브TV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공정한 계약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리 회원들에게 불리하고 디즈니의 TV 상품에만 이익이 되는 조건에는 동

의할수없다"고 덧붙였다.

디즈니 측은 성명에서 "구글의 유튜 브TV는 ESPN과 ABC를 포함한 우리 채널에 공정한 요금을 지급하기를 거 부함으로써 가입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 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가총액 3조 달러 규모의 구 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다른 모든 유통사와 성공적 으로 협상한 업계 표준 조건을 훼손하 고 있다"며 유튜브TV 측을 비난했다.

# 아마존, 감원 "문화때문" 논란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발표된 1만4000명 감원 계획의 배경은 조직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난 달 30일 설명했다.

재시CEO는이날실적발표후진행

된 애널리스트 콘퍼런스콜에서 감원 은 "재무적인 이유도 아니고, 지금 당 장은 인공지능(AI) 때문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인력, 거점, 사업 부문을 늘려왔다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조직 계층이 생기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의 주인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 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공 시에 따르면 아마존의 인력은 2021년 160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 기준 약 150만 명으로 감소 했다.









#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 김원기 종합보험

(301)962 - 8300(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 "연료승인" 요청하자 "미국서 건조하라" ·· '핵잠' 한·미 입장차

한국 "연료 승인받았다" 밝혔지만 미 생산 핵연료 공급받을 가능성도 "트럼프 발언, 미 조선업 부흥 의도 한국, 연료 자체생산 권한 받아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 용에서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 다. 한국은 핵잠을 자체 건조 및 운영하 기 위한 연료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 한 요지는 '핵잠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 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국 은 미국 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 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다양한 언급이 있어서 혼란스럽 지만 우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미국의 도움을 청했다"며 "우리가 승인받은 건 연료"라고 명확히 했다. "(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 면서다.

핵잠 도입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 오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있는 셈이다.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서 핵잠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은 이미 상 당수준 갖추고 있다. 핵연료 사용에 대 한 미국의 협조만 얻으면 시간은 걸려 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건조에 착수 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한국에 자체적인 연료 생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봉인된 형태 로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

다. 그러나 이는 곧 핵잠 운용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게 돼 자주적 운용 이 어렵다는 뜻이 된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 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핵연 료 공급 요청'과는 무관한 동문서답" 이라며 "한국이 농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봉인된 형태로 연료를 공급받

는다면 만에 하나 미국이 공급을 중단 할 경우 수조원을 들인 핵잠이 자칫 고 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 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이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건조를 승인할 테니 미국에서 하라'고 한 맥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것만으로는 단순히 미국산 핵잠을 구

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이 미 국 내에서 직접 건조하도록 허용받는 것인지, 혹은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

또한 핵잠을 건조하려면 필리조선 소가 미국 국내법상 방산업체로 지정 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화오션의 자 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다. 필리조선소의 인프라가 미흡한 측 면도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 난달 30일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 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수천t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필리조선소 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주 적 핵잠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미국 내 조선업을 부흥시키려 는 의도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핵잠 도 입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구상 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정부 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 트투자를 협상 카드로 삼아 핵잠은 한 국에서 직접 건조하고 농축우라늄 사 용권 등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 상해야한다"고말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 "다시 선택하라면 또 우주인 될 것 같아"

# 영광만큼 컸던 논란 이젠 극복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때도 한국 테크 기업 미국 진출 도와

3만6000대 1.

'한국최초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벌어진 경쟁률이다. 이소연 박사 는 2008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주 에 나아갔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귀환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영광스러 운 수식어 뒤로 '먹튀 논란' 같은 오해 도 감당해야 했다.

현재 그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2025 아시안 명예의 전 당'에 헌액된 이 박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주인' 타이틀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소연의 내면과 시간을 들여다

다음은 이소연 박사와의 일문일답.

- 명예의 전당 헌액 소감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오르는 자리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헌액자로 선정됐다 는 연락을 받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였 어?' 하며 놀랐다."

- 추천은 어떻게 받았나.

"시애틀에서 몇 번 만난 적 있는 줄 리 강(킹카운티 이민·난민위원회 위 원)이라는 분이 추천하고 싶다고 했

# -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나.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다. 워싱 턴대(UW) 강사로 요청이 있을 때 강 의를 나간다. 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 는 한국 테크 스타트업들의 사업 개발 과 네트워킹, 잠재 고객 미팅 등을 돕고 있다. 30대 후반에 미국에 와 살지만 정 체성은 '한국인'이다. 한국 기업을 도 울수있어보람이크다."

-'한국 최초 우주인'타이틀은 영광인 가, 무게인가.

"둘 다다.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소연 박사가 우주인 시절의 영광과 책임감에 관해 말하고 있다.

있든 책임이 따른다. 처음엔 그 무게가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 가 책임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는걸깨달았다."

-귀환 후 부정적 논란도 있었다. 당시 심

"그땐 정말 바빠서 상처받을 겨를도 없었다. 새벽 2시에 들어와서 4시에 다 시 나가는 일정이 계속됐다. 만약 지금 그때처럼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이 쏟 아졌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 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울했던 건 신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서였다. 하루에 강연이 서너 건씩 잡혀 있었고, 발표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함께 일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 들도잠을 거의 못자며 고생했다."

-우주는 애착의 대상인가, 해방되어야 할 기억인가.

한때는 우주를 인생에서 지워버리 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시선 이 '저 친구는 우주인이라 이건 안 할 거야, 연봉을 더 줘야 하지 않을까, 우 리가이 일을 시켜도 될까' 이런 식이었 다.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 도 우주의 일부인데 굳이 떼어낼 필요 가 있나 싶다(웃음). 요즘은 우주 산업 으로 다시 돌아오려 하고 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우주인의 길을 또 걷겠나

"그럴 것 같다. 지금의 모든 걸 알고 돌아간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때의 미숙함과 지식 그대로라면 다시 그 길 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 라고 생각한다."

김경준 기자

이소연 박사는

1978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예비 우주인으로 선정됐고, 2008년 3월 한 국 최초의 정식 우주인으로 발탁됐다. 2014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 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2~2014년 UC버클리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 고, 2013년 미국에서 정재훈씨와 결혼 했다. 워싱턴대 공과대학 강사와 피어 스칼리지 조교수를 지냈다. 한국 우주 기술 스타트업 스펙스(SPEX) 글로벌 비즈니스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전면광고 △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 메디케에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오바마 벨스케O

등록기간: 11월 1일~ 1월 30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2026년도 오바마케어 신청은 공인 에이전트와 함께 하세요! 내년도 오바마케어에는 플랜 조건과 보조금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정확한 플랜 선택을 위해, 공인 에이전트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하셔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세요.









20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 0101515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센스 도와드립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703-750-2205, 2206

Fax: 703-750-2207 Email: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mark>애난데일 703-354-1515</mark>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36 1+1











**천식**에 최고

#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쳐메딕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프로바카군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헤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명인 도해 용융 지죽영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체중 감량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 000 C 000 우유를 못 드시는 ANDREASE BRIDGE 분도 편안하게 NEBB HIST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 [특집 기획] 당신의 랩 다이아가 'K 블링블링'이라면... 빛의 예술은?



실험실에서 자란 랩(Lab) 다이아몬드 열풍이 올 들어 뉴욕 · 엘에이 등 미주에서도 심상치 않다! 한국 · 미주를 잇는 랩그로운 다이아의 확산과, 프리미엄 세공으로 빛나는 고베쥬얼그룹 'K-블링블링'의 전략.

지난해 한국에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이하 랩 다이아)'가 대중적 선택지로 부상한 데 이어, 2025년 현재 미주—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보석 상가를 중심으로—대체 럭셔리의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가격 대비 가치, 윤리 환경 감수성, 디자인 다양성이라는 3대 동력이 수요를 밀어 올리는 사이, 고베쥬얼그룹이 최근 본격 출시한 K-블링블링 랩 다이아는 프리미엄 세공의 경쟁력을 앞세워 '빛의 품질'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 현장 르포: 한국에서 미주로 —수요확대의 동선

• 한국: "실속과 취향"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예물ㆍ데일리 웨어 모두에서 랩 다이아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캐럿ㆍ컷ㆍ컬러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온라인 상담ㆍ맞춤 제작이 일상화되며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 미주, 특히 LA · NYC: "다양성의 현장"

다운타운 보석거리와 코리아타운(LA),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NYC) 일대 보석상들은 업데이트 주기가 빠른 트렌드형 세팅과 커스텀 오더로 랩 다이아의 강점을 살린다. "비슷한 예산으로 더 큰 사이즈ㆍ더 높은 등급의 광휘를 고를 수 있다"는 체감 이점이 입소문을 타며, 프로포즈 링,테니스 브레이슬릿 등 랩 다이아는 물론 종전의 유사 보석으로 한때 인기가 있었던 모이사나이트까지 동반 상승 중이다.

# K-블링블링의 랩다이아몬드 강점은 다음과 같다.

- ・미세 관통각 · 포크 각도 제어: 프롱(발) 각도와 높이를 미세 조정해 크라운 · 테이블 영역의 광량 손실을 최소화.
- •마이크로 프롱 · 인비저블 세팅 노하우: 겉보기 메탈 노출을 줄여 스톤 면적 대비 발광비를 극대화.
- ・착용 얼굴빛까지 고려한 각도 배치: 얼굴 근처에서 반사되는 광택을 계산해 톤업(화사함) 을 유도.
- 데일리 착용성을 높이는 세공 마감: 밴드 내부의 컴포트 핏(안쪽 라운딩), 헤어 캐칭 감소 처리, 프롱 말단의 스무딩으로 내구성과 편의성 확보.

요약: 같은 랩 다이아라도 고베쥬얼그룹의 프리미엄 반지는 커 보이고 더 환해 보인다. 이것이 K-블링블링이 미주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차별점이다.



# 결론: "당신의 랩 다이아가 K-블링블링이라면…"

랩 다이아 열풍은 가치 · 윤리 · 디자인의 합으로 만들어낸 '반짝임의 민주화'다. 그리고 그 반짝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세공에 있다. K-블링블링의 프리미엄 반지는 프롱 각도 · 마감 · 광량설계를 통해 같은 스톤을 더 크게, 더 환하게 보이게 만든다.

고베쥬얼그룹의 K-블링블링 랩 다이아는 단지 '값비싼 대용품'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기념일을 품격 있게 완성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당신의 랩 다이아가 K 블링블링이라면 그 반짝임은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더욱 눈부시게 작동할 것이다.

# 왜 랩 다이아인가? : 선택의 5가지 동력

1.가성비의 체감: 동일 예산에서 더 큰 캐럿 · 더 엄격한 컷을 고르기 쉬워, 착용 시 존재감이 커진다.

2.윤리 한경 감수성: 채굴 이슈에 민감한 MZ 알파세대일수록 '투명한 출처와 생산 과정'을 선호한다.

3.디자인 실험성: 하이 주얼리부터 데일리까지, 파베·헤일로 ·마이크로 프롱 등 미세 세팅을 적극 활용해 광휘(bling) 를 극대화한다.

4.리세일 · 관리 관점의 현실성: "소장가치 vs. 활용가치" 균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데일리 활용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산.

5. K-블링블링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적 분위기 중시"

\*\*다이아의 가치는 결국 '빛'\*\*에서 갈린다. 같은 스톤이라도 세공이 빛의 경로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 · 고정하느냐에 따라 페이스업(착용 시 정면)에서의 반짝임과 사이즈 체감이 달라진다.

# (P) KOBE JEWEL GROUP 2025 고베쥬얼그를

# K 블링블링의 **랩CHOIOH몬드** & 모사LH이트 전폭목 20% 네일

최근 미주 한인 사회에서 주목받고있는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 주얼리!!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첨단 기술로 실험실에서 밀러낸 다이아몬드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성분과 광채를 지니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고베쥬얼그룹 연말 총결산에서 만나보세요!! 정교한 세공 기법으로 메세한 귀팅과 세팅으로 보석의 빛을 극대화해,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 후 조 건 최 대 **20%-80%**

# 대박세일

# 6世書書書大社太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행사기간동안 K-BlingBling에서 쇼핑하시고, 2026년 새해 첫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등: 랩CFOIO 5캐럿 14K 세팅 (1명, \$15,900 상당) 2등: 랩CFOIO 3캐럿 14K 세팅 (2명, \$6,500 상당) 3등: 모이사나이트 5캐럿 14K 세팅 (2명, \$5,500 상당) 4등: 천연 양식진주 2줄 베드 목걸이(7-8mm) (3명, \$3,500 상당) 5등: 한국 산양삼 농축액 2달분 (10명, \$500 상당)

행사기간: 2025년 11월 1일 ~ 12월 31일 추첨일: 2025년 12월 31일 (수) 오후 3시 장소: 플러싱 코리안빌리지 K-BlingBling 매장

반지천국 2000여점 50~80% 대박세일!! 제품 구매고객 전원에게 고급스카프 공짜선물!!

# 人파릿픽드 익정

일시: 2025년 11월 2일(일)-4일(항), 단 3일간 장소: 코트야드 바이 매리엇 LH 특설매장 Courtyard by Marriott, (베스트 웨스턴 맞은편) 주소: 6710 Commerce st Springfield, VA 22150

# 애난데일 일정

일시: 2025년 11월 5일(수)-6일(목), 단 2일간 장소: 한인 커뮤LIEI 센터 2층 특설매장 (Community Center 2F) 주소: 6601 Little river TPK Alexandria VA 22312

# 센터빌 일정

일시: 2025년 11월 7일(금)-8일(토), 단 2일간 장소: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 특설매장 (센터빌 H 마트서 10분 개리) Hyatt Place Chantilly/Dulles Airport-South 주소: 4994 Westone Plaza, Chantilly VA 20151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홈페이지: Kobejewelgro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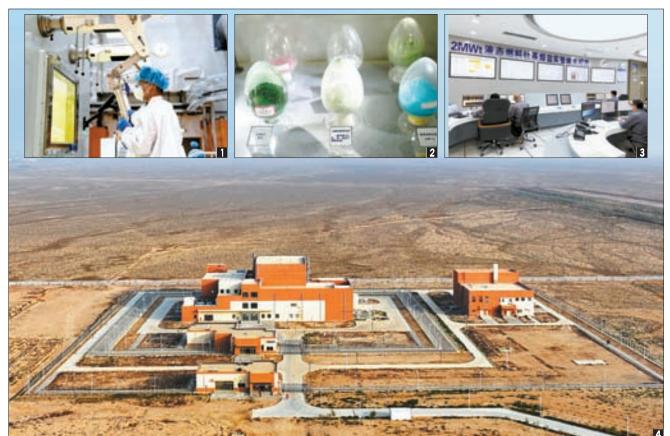
# 우라늄 안쓴다, 중국 사막 위 토륨 원자로 첫 성공

토륨에 핵분열 일으켜 우라늄 변환 바닷물 대신 고온액체 상태 소금 써 2MW 실험성공, 100MW 건설 목표 중국내 토륨 1000년 사용량 매장

중국이 바다 없는 간쑤(甘肅)성 고비 사막에 건설한 토륨 용융염(鎔融鹽) 원자로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 늄 핵연료로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다. 중국이 실험한 원자로는 토륨을 '고온 액체 상태인 소금'(용융염)과 함께 원 자로에 주입해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 을 하는 원자력 시스템이다. 용융염이 냉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바다 곁에 원자로를 짓지 않 아도 된다. 서방에서는 기술적 한계에 부닥쳐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 발에 중국이 성공한 것이다.

중국과학원(CAS)은 지난 1일 고비 사막의 토륨 용융염 실험로(TMSR, Thorium Molten Salt Reactor)에서 토륨을 용융염 원자로에 주입해 세계 최초로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고 발표 했다. 관영 신화사는 "우라늄 광석 대 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유일 의 가동형 용융염 원자로"라고 보도했 다

토륨(원소기호 Th)은 방사능이 낮은 은색 금속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암석 안에 존재한다. 중국의 토륨 광물 매장량은 28만6000톤으로 인도 34만톤에 이어 세계 2위다. 1000년 이상 사용할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1 중국 연구원들이 실험용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에서 샘플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 2 TMSR의 주요 원료. 왼쪽부터 고순도 사불화 우라늄, 토륨 연료 염, 저온 용해 질산염. 3 TMSR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제어실. 4 고비사막에 2020년 착공한 TMSR. [신화=연합뉴스]

토륨 자체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없지만, 토륨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성 우라늄-233으로 변환시키는 게 토륨 용융염 원자로의 핵심기술이다. 내륙에도 원자로를 건설할수 있고, 우라늄 원자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사성 폐기물역시 적고 안전성도 더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4세대 첨단 원자

력 시스템으로 꼽힌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기술적 난관이 존재한다. 토륨을 우라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섬세한 제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5년 테네시주 국가실험 실에 용융염 실험로를 건설하고서도기술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연구 를 포기했다. 반면에 중국은 2011년 '미 래 첨단 핵분열 에너지' 선도 프로젝트 로 선정하고 100여 개 연구소·대학·산 업체를 참여시켜 핵심 소재와 장비 국 산화에 성공했다.

중국의 성공으로 원자력발전의 환경 자체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해

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원전을 건설한 다. 물이 고갈되면 원자로 노심이 과열 돼 녹아내릴 수 있다. 상하이 응용물리 연구소 한 전문가는 신화사에 "토륨 용 융염 원자로는 고온의 액체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하므로 거대한 압력 용 기나 냉각을 위한 다량의 물이 필요 없 다"며 "핵연료를 '고온의 소금'에 넣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리칭위안(李 晴暖)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 부소장 역시 "토륨 용융염 원자로는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도 연료를 재장전할 수 있 어 연료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방 사성 핵폐기물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원자로를 지하에 건설하고 완벽한 차 폐시스템을 갖출수 있고,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작동해 폭발 위험이 없다"고 과기일보에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실험 원자로→연구 원자로→시범 원자로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기술 완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성공한 원자로는 실험적 성격 때문에 용량이 2MW(메가와트)에 불과하지만, 다음엔 2035년까지 100MW급 시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벌써부터 중국이 산업·군사적 전용을 염두에 두고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중국의 국영선박업체 장난(江南) 조선소는 2023년세계 최초로 핵동력 컨테이너선 설계를 발표하며 용융염 원자로를 채용했다. 용융염 원자로를 핵추진 항공모함에 채택할 계획이라는 보도 역시 나오고있다.

# 삼성물산, 카타르서 1.9조원대 탄소 압축·이송설비 공사 수주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1조원대 규모 탄소 압축·이송설비 공사를 수주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로 포트폴리 오확장에 속도를 낸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단독 수행하는 설계·조

달·시공(EPC) 공사비는 1조9천100억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 의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 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2030년까지 건설하 는 사업이다. 라스라판 단지 LNG 액 화플랜트에서는 연간 410만t의 이산화 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건설되는 시설은 이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한 뒤 20km 연장 지중배관을 통해 폐가스 전의 지하 공간으로 이송해 영구 격리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압축하는 기술 뿐 아니라 안전한 이송을 위한 압력·온 도 조절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카타르 LNG 프로젝트 경험 인력을 활용하고 현지에서 검증된 협력업체와 협업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에서 앞서 2021 년 LNG 터미널(1조8천500억원), 2022 년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8천억원), 2024년 담수복합발전(3조9천709억원) 올 9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1조4천 600억원)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병수 삼성물산 해외영업실장(부사 장)은 "카타르 시장 내 다수의 대형 프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수주를 통해 삼성물산 이 수행한 태양광 사업과 더불어 카타 르의 지속가능 정책 실현에 핵심 역할 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기창기자

# 美, 석탄·철광석 수출금지 위반한 北선박 유엔제재 추진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채 석탄· 철광석을 수출한 북한 및 제3국 선박 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

다. 3일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톈퉁, 신평 6)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

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Flyfree)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으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며 "또 올해 1월에는 북

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식 안건이 제기되고 1718위원회 회원

국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적으로 제재 대 상 지정이 확정된다. 만일 이의를 제기 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 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 아이슬란드 의회처럼 무작위로 섞어 앉히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 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격차는 커지 고, 정치와 문화의 분열은 깊어졌다. 사 람들은 더 이상 토론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 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 계 곳곳의 민주국가가 같은 병을 앓고 있다(Boxell et al. 2024).

오늘날 우리는 신문보다 알고리즘이 짜준 '피드'를 먼저 본다. SNS와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을 학습 한다. 그 결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적으 로 노출된다.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접 하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강화한다. 이 것이 정보의 울타리, 이른바 '에코 챔버 (Echo Chamber)'다. 최근 연구들은 디 지털 환경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 로 보여준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문제다. 한 논문은 주요 SNS에서 1억 여건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 슷한 성향의 이용자들이 서로 더 긴밀 히 연결되고, 정보가 같은 성향의 집단 안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Cinelli, Matteo et al., 2021).

### 우리 국회에도 '접촉 가설' 적용을

확증 편향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의 견이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다. 그 불편한 접촉이 편견을 줄이 는 첫걸음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이라 부르 는이 이론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반 복해 증명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지 만, 동시에 분열의 공간이다. 정당별로 나뉜 좌석 배치는 정치적 벽을 더 높인 다.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만들 고, 심리적 거리가 정치적 적대를 낳는 다. 그런데 강제로라도 사람을 섞이게 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유럽의회는 의원들이 정당별로 앉 지만 정당 구역 내에선 이름 알파벳 순 서로 앉는다. 연구자들은 이 규칙 덕분 에 "누구 옆에 앉느냐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왔다. 옆자리에 앉은 의원 끼리는 두표가 7%포인트 더 비슷했다 (Harmon et al., 2019). 대화의 기회가 도만으로는 정책이 성공하지 않기 때 설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아이슬란드 의회에서는 좌석을 무 작위로 추첨한다. 연구 결과, 다른 정당 의원이 옆자리에 앉으면 초당적 투표 확률이 높아지고, 발언의 어조와 단어 선택까지 유사해졌다(Saia, 2018). 같 이 앉은 두 의원이 같은 표를 던질 확률

은 약 0.5~1.0%포인트 상승한다(Lowe and Jo, 2025). 물리적 거리가 좁혀질 때 정치적 거리도 줄어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아이슬란드 방식을 생 각해볼 때다. 정당별 구역을 나누는 관 행 대신, 매 회기마다 추첨으로 좌석을 정하면 어떨까. 무작위로 짝을 정해 서 로를 알아가고 대화하는 초등학교의 '마니또'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 이념이 다른 의원들이 일정 기간 서로의 '의정 마니또'가 되어 함께 점심 을 먹거나 지역구, 정책 현장을 동행하 는 것이다. 작은 대화와 동행이 편견을 줄이고 협력을 키울 수 있다.

## 배경 다른 룸메이트와 살았더니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을 무작위로 섞는 것의 힘은 교육 현장에서도 드러 난다 미국의 예다 대학 신입생을 무작 위로 룸메이트로 배정한 뒤 1년 동안 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점차 룸메이트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Strother et al., 2020). 생각의 변화는 교수나 강의보다 일상의 대화와 생활 속 접촉에서 비롯 되었다. 보수 성향 학생일수록 상대의 관점을 더 많이 흡수했고, 이념적 간극 이 좁혀졌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위치한 아메리 칸 대학교는 1학년 신입생을 무작위로 짝지어 수업을 듣게 한다. 2001~2016년 모든 재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슬람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비이 슬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수록 성적 이 높아지고, 다른 종교 교수의 수업을 듣는 비율이 증가했다(Canaan et al., 2025). 종교적 소수자에게 다양성 접촉 은 자신감과 개방성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비이슬람 학생들은 종교색이 강 한 환경에서 다소 불편함을 겪었지만, 그불편함이 결국 상호이해를 넓혔다.

이 두 연구는 대학이 학문의 장을 넘 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용광로이 자 실험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름을 마주 보는 일은 불편하지만, 바로 그불편함이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만남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에 더해 근거 기반의 토론이 필요하다. 근거를 찾는 이유는 좋은 의 문이다

# 미국 저소득층 조기교육 정책의 명암

예를 들어 미국의 '헤드 스타트 (Head Start)'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1965년 저소득층 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해 시작된 이 정책은 반세기 동안 대



른 무작위 원칙을 따른다. 다른 정당 의원 옆에 앉거나 인접해서 앉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달라도 옆에 앉은 의원과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불편한 접촉이 편견 줄이는 효과 정당별좌석 배치 이젠 그만해야

'섞어서' 하는 교육 실험도 긍정적 '다름' 마주보는 게 통합의 첫걸음

증거에 기반한 토론도 함께 가야 농어촌기본소득 제대로 실험을

표적 복지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2년 실시된 국가 헤드스타트 영향 평가 연구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줬다. 유치원 입학 시 인지능력은 높았지만, 초등 3학년이 되기 전 대부분의 효과가 사라졌다(Puma, Michael et al. 2012).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가정방문, 정 신건강, 영양지원 등 통합 설계가 있 을 때는 효과가 지속됐다(Currie and Thomas, 1995).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이 낮아지고, 건강지표와 학력도 개선 됐다. 효과의 경로는 비인지능력, 즉 정서조절·사회성·자기통제력이었다 (Deming, 2009). 결국 선한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와 근거, 그리고 체계 적 평가였다.

우리나라의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방식은 증거가 정책을 바꾼 사 례다. 당초 계획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 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유사한 사업인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연구 결과, 저소득층의 소비성 향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 비 진작이 목적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 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차 상위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상위 10% 1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치가 아 니라 증거가 정책을 이끈 순간이었다.

정책은 신념이 아니라 근거로 세워 져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증거 기 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라 부른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 전후에 인과 효과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수 정·보완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제도화했 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 '근거 팀(Evidence Team)'을 두고 각 부처의 평가와 데이터 활용을 체계화했다. 이 후 2018년 제정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법'은 모든 연방기관이 과학적 근 거와 평가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도 록 명문화했다. 영국의 왓 웍스 네트워 크(What Works Network)는 2013년 출범한 공공정책 평가 인프라로, 내각 의 평가 태스크포스 팀이 총괄한다.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함께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며, 보건·교육·범죄·노년·청년 등 9개 분야 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근거를 공 유한다. 정책 평가의 황금 기준(Gold Standard)은 실험이다. 의료현장을 떠 올려 보자. 의사들은 수만 건의 무작위 대조실험을 통해 '어떤 치료가 최선인 가'를 데이터로 입증해왔다. 새로운 치 료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 치료를 대조 군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이 런 방식이 과학의 신뢰를 세웠다. 정책 도 마찬가지다. 말이나 신념이 아니라 실험과 검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시범사업, 제대로 평가 설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접근이 시작 됐다. 서울시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모델을 적용한 '디딤돌소득실험'을 시 작했다.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인 가 구의 월 소득이 140만원이라면, 기준선 (340만원)과의 차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늘어나도 급여가 급격히 끊기지 않아 근로의욕 을유지할수있다.

서울시는 참여 가구와 대조군을 무 작위로 배정해, 향후 몇 년간 소비·고 용·삶의 만족도를 추적한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무작위 대조실험형 복지 실험으로, 정책의 과학화를 상징한다.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 본소득 시범사업에도 이러한 평가 설 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근간을 바 꿀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지만, 효과를 검증할계획이 없다면 또 다른 '좋은의 도의 실패'로 남을 것이다. 무작위 배 정, 대조군 설정, 조사 설계, 데이터 분 석계획이 명확히 마련될 때,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정책의 속도보다 정확한 평가와 피 드백이 숭요하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확증편 향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이 아니다. 분열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만 남과 근거, 두 축에서 나온다. 만남은 편견을 줄이고, 근거는 토론을 깊게 만 든다. 양 극단의 시대를 건너, 다시 서 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김현철 연세대 의대·홍콩과기대 경제학교 교수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চাণাল্ড DMV প্ল, কান্যকামাট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컬러TV·광섬유·인공신장…과학불모지서꽃핀 'K기술'

1962년 1월, 경제기획원이 박정희 당 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박 정희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현재 우리 기술 수준과 기술자로 목표 를달성할수있겠나."

당시 한국은 연구개발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59년 설 립한 원자력연구소가 있었으나 특수 분야 연구에 한정됐다. 나머지 연구소 는 정부 스스로도 '대부분 생산품 시험 에 그칠 뿐, 연구실험 분야에는 손을 대 지 못하고 있는 실정'(『1962 과학기술 백서』, 경제기획원 발간)이라고 자평할 정도였다.

박정희는 62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 의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다. "경제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 구인 경제과학심의회의를 설치하자."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를 만들고, 종 합연구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 온 게 바로 이 경제과학심의회의를 통 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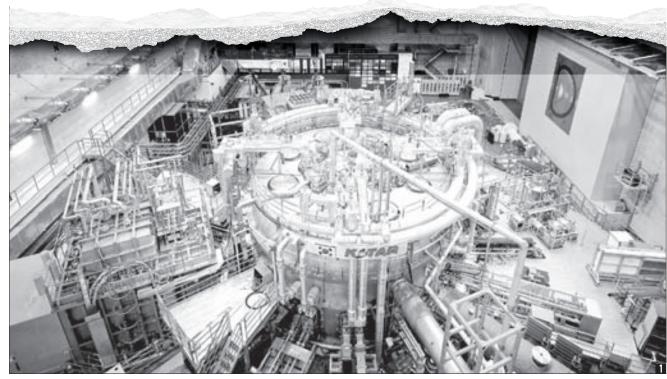
박정희는 과학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은 그의 신조 중 하나였다. 73년 연두 기자회견 에서는 '전 국민의 과학화'를 내세웠다. 박정희가 어떤 연유로 과학기술에 관 심을 갖게 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본 을 보며, 또 전쟁을 겪으며 일찌감치 과 학기술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겼다는 추측이 나올뿐이다.

절대권력을 쥔 국가 지도자의 관심 에 힘입어 국내 연구개발의 토대가 하 나둘 마련됐다. 경제개발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력과 기술자에 대한 걱정을 표한 직후 경제기획원은 '기술진흥 5개 년 계획'을 세웠다. 기술자 확보와 외국 기술 도입 촉진 방안 등을 담았다.

박정희는 수시로 과학기술자들을 만 나 귀를 기울였다. 초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원장과 2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최형섭 박사의 회고록 『불 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는 이런 내용 이 나온다. '64년 말. 청와대 한준석 경 제담당비서관이 찾아왔다.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부탁 이었다. 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 께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해 도입 하고 소화해 적용하도록 해주는 매개체 (종합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보다 봉급 많은 과학자 수두룩

최 박사뿐 아니라 여러 과학자가 산 업기술 종합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그러나 자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 는 연구소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다. 베트남 파병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문을 열고 약 60년. 한국은 연구개발 강국으로 떠올랐다.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 분야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핵융합 연구로인 KSTAR 외부(Ⅲ)와 내부(᠒), 집 49개 연구소와 2800여 기업이 모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진 KIST·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에 대한 보답 등을 논의하기 위해 65년 5월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를 국빈 초청했다. 박정희는 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듬해 2월 한 국과 미국이 1000만 달러씩을 투자해 KIST가 문을 열었다. 설립 자금 2000 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설립자금으로연구장비는살수있 었지만 우수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당시는 두뇌유출이 심 각했다. 인재는 좋은 연구 환경과 처우 를 찾아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갔다. 최 원장은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들 을 만나 설득했다. "노벨상을 타고 싶 으면 남아 있으시오. 그러나 조국을 위 해 일하고 싶다면 귀국해 주십시오. KIST 설립 초기에 재외 과학자 18명이 한국을 택했다. 소식을 들은 휴버트 험 프리 미국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세 계 최초의 역 두뇌유출(reverse brain drain)이다."

귀국한 이들에겐 파격 대우를 했다. 연봉은 국립대 교수의 3배였고, 당시에 없던 의료보험을 미국과 계약해 맺어

줬다. 박정희가 과학자들의 봉급표를 보고 "나보다 봉급 많은 사람이 수두 룩하군"이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KIST는 컬러TV 수상기(71년), 국내 최초 미니컴퓨터인 '세종 1호'(75년), 폐 렴 백신(79년), 광섬유 기술(84년), 인공 신장(93년) 등을 개발하며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60년대 말~70년대 초반에 나온 전자·기계·자동차 공업 육성 방안 또한 KIST의 작품이다. 103만t 철강생 산설비와 공장 배치, 원료 수급 대책 등 포항종합제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 려낸 것 역시 KIST였다. 88년 서울올 림픽 때는 KIST 산하 도핑컨트롤센터 가 남자 100m 육상 캐나다 대표 벤 존 슨의 약물 복용을 밝혀냈다.

시간이 흐르며 규모가 커진 KIST의 전문 연구부문들이 독립해 나갔다. 지 금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해양 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생명 공학연구원 등이 그렇게 생겼다. KIST 가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태인 것이다. 잇따라 연구소가 생기면서 여러 연구 기관을 한곳에 모아 협동체를 만들자 는 구상이 시작됐다. 연구장비와 시설 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연구원들 간 교

류도 촉진해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였 다. 그렇게 73년 '제2 연구단지 건설 기 본계획'이 확정됐다. 장소는 충남 대덕 군이었다. 78년 표준과학연구소를 시 작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들이 모여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형성됐다.

애초 KIST는 산업기술 개발이 목표 였다. 기업에 필요한 과제를 수주받아 연구하는 계약 연구기관이었다. 이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크게 다 르지 않았다. 당장 산업 발전이 시급했 던 당시로선 기초과학 연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최형섭 박사의 회고록 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휘소 박사한 테서 자신도 연구소에서 일해 보겠다 는 편지를 받은 일이 있다. 그에 대해 나 는 KIST는 아직 기초연구를 할 단계가 아니며, 노벨물리학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박사는 좀 더 거기서 머물며 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했다.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밟을 무 렵이 되자 국가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렇게 해서 2011 년 기초과학연구원이 생겼다. 독일 막

스플랑크연구협회나 일본 이화학연구 소같이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 는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설립 목표였다. 3년에 불과하 던 다른 연구원과 달리 IBS 원장의 임 기는 5년에 연임을 보장했다. 파격적인 연구자금도 줬다.

### 해마다 10월이면 찾아오는 '노벨상 앓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국은 연구개 발 강국으로 떠올랐다. 세계 최고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가 논문의 질 등을 종 합 평가한 '네이처 인덱스'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 자는 절대액 기준 세계 5위, 국내총생 산(GDP) 대비 비중으로는 이스라엘에 이어 2위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을 비교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 가' 결과는 미국·스위스·네덜란드에 이 어 4위(2024년)였다.

하지만 국민 모두 아쉬워하는 부분 이 있다. 해마다 10월이면 '노벨상 앓 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인 반면, 우리는 아직 없다.

물론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보다 거의 100년 앞서 이화학연구소를 세운 일본과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일 본은 특히 경제가 호황이었던 70~80년 대 기초과학에 대거 투자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잇따라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또 한국은 아직 장기 적인 안목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 하기보다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풍토 가 남아있기도 하다.

응용기술 분야 또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언제부턴가 '투자한 만큼 경제 성 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의 '연구개발 패러독스'란말이나왔다. '피크코리아 (Peak Korea·한국은 지금이 정점)'라 는 단어까지 들린다. 과학기술인에 대 한 존중과 대우도 예전보다 크게 떨어 졌다. 오죽하면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 대만 찾는 실정 아닌가. 중국의 과학기 술력이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현실 역시 대한민국 경 제에는 위협 요소다.

『과학기술 50년사』(2017년)들 종괄 편찬한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 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미래 먹 거리를 창출하고, 기업 연구소가 이를 받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국가 혁신체 계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전문기자, 논설위원





대한민국 △1○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 2030 이공계 62% "3년 내 해외이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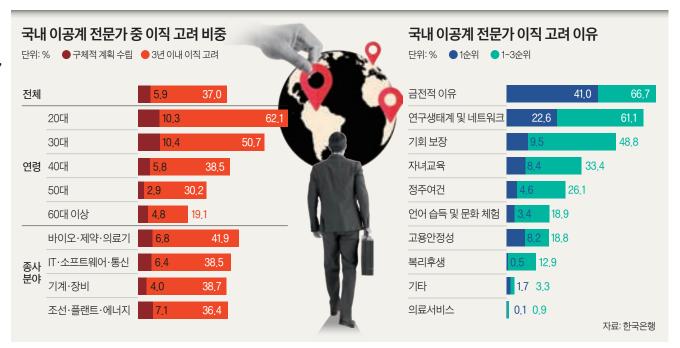
10년간 이공계 석박사 9.6만명 유출 한국우위조선도40%가이직고려 전문가 "연구할수 있는환경조성을"

국내 젊은 이공계 인재(석·박사급)의 약 3분의 2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아닌 연공 중심 의 보상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 공계 전문가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 는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대 국내 이공계 전문가가 62%(구체적 계획 수 립 단계까지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기 업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석·박사급 연 구자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체 석·박사급 인재 중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비중 도 42.9%에 달했다. 젊은 층일수록 해 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구 체적으로 응답자 중 20대는 72.4%, 30 대는 61.1%, 40대는 44.3%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은 이미 상 당 부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 년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총 34만 명이다. 이 중 석·박사급 엘리트 인력만 9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전 문 인력은 순유입국에서 순유출국으 로 이미 전환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 심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AI 인재 가지난해 0.3명 빠져나갔다. 이는 이스 라엘과 인도·헝가리·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유출 비중이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 계 인재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교 최상위권 인재의 상 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있다"며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들 역시 더 나은

연구 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인재 유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바이오 제약 의료기 기(48.7%)나 정보통신(IT)·소프트웨 어·통신(44.9%)같이 선진국이 우위 를 점한 분야에서 해외 이직을 고려하 는 비중이 높았지만, 한국이 우위에 있 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도 이직 을 고민하는 전문가 비중이 40%를 넘 겼다. 이공계 인재의 한국 탈출의 원인 은 복합적이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은 낮은 연봉이다. 해외 이직을 원하는 이유(1~3순위 복수응답)에서 국내 이 공계 전문가 66.7%가 금전적 이유를 꼽

았다. 한은은 성과가 아닌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 었다. 해외 이공계 전문가는 13년 차에 가장 많은 연봉(평균 36만6000달러)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이공계 전문가는 19년 차에 최고 연봉(평균 12만7000달러)을 기록했다. 국내 이공계의 경우엔 절대 연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최고 연봉까 지 도달하는 기간이 해외보다 6년 더 길었다. 이 때문에 20·30대 젊은 전문가 의 해외 유출이 커졌다.

비금전적 이유도 이공계 해외 유출 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한은 이 해외 이직 요인을 실증 분석해 보 니, 국내 이공계 전문가의 소득만족도 가 한 단계 상향됐을 때, 해외 이직 확 률은 4%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안정성 (-5.4%포인트) - 승진(-3.6%포인트) 같 은 근무 환경 만족도가 한 단계 올라갔 을 때도 이직 확률이 유사하게 줄었다.

실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 야는 연봉이 아니었다. 한은이 해외 체 류 이공계 인력(778명)까지 포함해 설 문조사한 결과 국내와 비교해 해외 전 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이 연구생태계(1.64배)였다. 이어 근무 여건(1.61배)·연봉(1.57배)·승진(1.49 배) 순이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연 구개발(R&D)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서는 한국이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효율 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 제"라면서 "(해외 이직 이유로) 금전적 인 부분이 높게 나오지만,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비자발 적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크다"고 설명

한은은 인적 자본에 세제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높 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에 기 반하는 유연한 임금·보상체계로의 전 환 ▶R&D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 업 기반 확충 및 전략기술 개방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장 ▶해외 연구기관·연 구자와의 교류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 하다고 조언했다. 김남준 기자

# 여당 '만 60세→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정년연장특위 '단계적 확대' 논의 내부선 "국회 일정상내년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 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 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3일 소영훈 의원을 위원장 으로 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 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

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노동력 부 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정 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 다. 이어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 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자 국정과제인 단계적 65세 정년 연 장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33년까 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출 범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격 상한 특위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보건복지·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노동계·경영계 인사 10 여명이참여한다.

특위에선 청년 고용 감소 등 정년 연 장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 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 공 부문에서도 청년 고용 확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정부 의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특 위에서 다룬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 수를 지낸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장은 "기업에 큰 인건비 부담이 없도록 고용 인력을 활용하고 적정 선에서 유 지되는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

민주당은 연내 정년 연장 법안을 처 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 도입 시기와 방식, 재고용 수용 여부 등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변수다. 노동 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경영계 는 재고용 형태 정년 연장을 각각 희망 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더 라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초처 리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

이찬규 기자

# 내년에도 중국 무비자 여행 가능…무비자 조치 1년 연장

해졌다. 중국이 3일 한국 등을 대상으 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내 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 빈방한(지난달 30일~1일)을 계기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올해 말로 다가온 한국 등에 대 한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내년에도 비자 없이 중국 여행이 가능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을 반영한 는 "중국과 외국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 정했다"고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무비자 정책이 연장된 국가 는 한국·일본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45개국 이다. 중국은 스웨덴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등이 목적인 경우 최장 30일 간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15일간 무 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 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건 1992년 8월 한 중수교 이후 32년 만 이었다. 같은 달엔 체류 기간을 15일에 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화 답해 한국 정부도 올해 9월 말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무비 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 **UPINION**

## 우리말 바루기

## 문장부호바르게쓰기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게 되면서 빠르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축약된 표현 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감사'로 줄이는 것을 넘어 'ㄱㅅ'으로 표현 하기도 할 정도로 속도가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 문장부호에서도 이 같은 현 상이 나타났다. '……'처럼 써야 할 말줄임 표를 '…'도 아닌 '..'처럼 쓰는 이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문장부호에도 맞춤법이 존재 한다. 말줄임표는 여섯 개의 중점으로 이뤄 진 문장부호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실제 언 어생활에서 세 개의 중점(…)이 많이 쓰이 고 있음을 인정해 맞춤법을 개정했다. 이뿐 아니라 가운데 찍었던 것을 '.....'처럼 아래 에 찍는 것도 바른 표기로 허용했다. 따라 서 지금은 '……' '…' '……' '…' 모두 바른 표 현이므로, 이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하지 만 '..'처럼 마침표 두 개만 쓰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해 써야 한다.

낫표(「」)와 화살괄호(⟨))도 지금은 잘 쓰이지 않아 따옴표('')로 대체해 쓸 수 있 도록 했다. 그러므로 「노벨상 수상집」은 '노벨상 수상집', 〈표준국어대사전〉은 '표 준국어대사전' 등과 같이 쓰면 된다. 공통 성분을 하나로 묶을 때 쓰는 가운뎃점도 '한·미·일' 대신 '한, 미, 일'처럼 쉼표를 찍 어도 된다.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 K타운 맛따라기

# 타운을 휩쓴 간장게장 르네상스

간장게장은 신선한 게를 간장 양념에 담가 숙성 시킨 한국의 전통적인 젓갈 요리이다. 그 유래는 고려 시대 문헌인 14세기의 농서 '농상집요(農桑 輯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궁중 과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고급 음식이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발달해 게를 오래 보관하기 위 한 저장 음식의 역할도 했다.

이 전통의 '밥도둑'이 몇 년 전부터 한인타운에 서 'K-푸드의 품격'을 상징하는 메뉴가 되고 있 다. 얼마 전 중국인 손님이 저녁을 쏘겠다며 한인 타운 간장게장 집으로 오란다. 웨스턴길의 '하선 생'이다. 원래 설렁탕 맛집으로 알려진 곳인데, 웬 걸? 이제는 옆 가게까지 터 두 배로 넓어진 매장에 서 늦은 시간에도 영업한다. 손님들 대부분이 간 장게장을 먹고 있다. 간장 새우도 인기 메뉴다. 손 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더니, 실제로 금가루 까지 뿌려져 반짝이는 간장게장이 상에 오른다. 경이적인 현상이다.

중국인들이 한인타운으로 간장게장을 먹으러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필자 가자주가던 버몬트길의 'K Town Crab House' 에 블랙핑크 리사가 다녀간 후, SNS를 통해 중국 인들에게 유명해지면서다. 리사가 다녀간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중국 관광객 성지로 떠 올랐다. 예전엔 여유롭게 들렀던 가게가 이젠 바 쁜 시간엔 피해야 할 정도로 북적인다. 특히 대형 성게 위에 각종 알을 듬뿍 올린 '성게 알밥'은 단



라이언오 CBC 월셔프로퍼티

연내 최애 메뉴다.

최근 LA의 간장게장 집은 파인 다이닝 수준까 지 고급화되고 있다. 올림픽과 하버드길의 하이 트 광장 옆 '게방식당'은 한국 미쉐린 가이드에 3 년 연속 이름을 올린 곳이다. 예약은 필수다.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의 코스가 짜임새 있게 준비되 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부키' 사장님 아드님 이 경영을 맡고 있다. 가부키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한식당 '가빈'에서도 같은 간장게장 맛을 볼 수있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상을 받은 날 뒤풀이를 '소반 식당'에서 했다. 이 식당 의 가장 유명한 메뉴가 간장게장이라는 일화는 간장게장의 위상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타운에는 간장게장의 깊이와 다양 성을 보여주는 전문점들이 곳곳에서 꾸준히 성 업 중이다. 3가와 호바트의 '짜몽' 옆에 위치한 '알찬 꽃게'는 간장게장 전문 식당으로, 많은 손님 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8가길 '온달'은 꽃게탕과

게찜으로 유명하지만 간장게장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메뉴다. 온달은 한인타운 간장게장 업체 중최장수를 자랑한다.

전문점은 아니지만, '올림픽 칼국수'의 매운 양 념 게장 맛은 거의 독보적이다. 매장에서는 칼국 수를 시켜 먹느라 바빠, 대부분 투고해서 양념 게 장을 집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북창동 순두부'의 양념 게장도 완전 수 준급이다. 여러 지점이 있어 LA는 물론 뉴욕, 텍 사스 등 어디서든 급하게 양념 게장이 먹고 싶을 때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맛을 볼 수 있다.

비록 정식 메뉴는 아니지만, '남원골 추어탕집' 에서는 전라도식 맛깔스런 밑반찬에 대한 자부심 이 있는 사장님 덕분에 가끔 양념 게장이 밑반찬 으로 나오곤 한다. 넉넉한 인심 덕에 반찬 양이 푸 짐하다. 투고를 하겠다면 맛과 양, 가격까지 착한 '보릿고개'의 간장게장도 훌륭한 선택이다. 보통 보릿고개 매장에서는 비빔밥을 비벼 먹느라 바 빠 간장게장은 주로 포장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버몬트 길의 '튀는 활어'에서는 파 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당 39.99달러 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비싼 간장게장으로 하루 날 잡고 배를 불리 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간장게장은 이제 한인 타운에서 한국의 정(情)과 손맛을 전하는 문화의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아침에

# 가을이온다, 추억이 따라온다

가을이 온다. 오고 있다. 가을이 왔다. 떠날 때는 따스한 햇살 뭉치가 여름의 끝자락에 매달려 울 긋불긋 실타래처럼 반짝거렸다.

가을은 낙엽의 갈길을 재촉한다. 미련 없이 서 둘러 떠나던 그대 뒷모습처럼 바람에 섞여 안개 처럼 흩어진다. 처음 만난 모습보다, 흩날리는 바 바리 코트의 기억으로 남은 그대는 세월이 흘러 도 여전히 작별의 옷자락을 여민다.

가을이 오면 죽기 살기로 깡술을 퍼마시던 가 난한 문우들 생각이 난다. 모두 가난했다. 허름한 주머니에는 구겨진 화선지 한 장과 해묵은 먼지 가 켜켜이 쌓여있었다. 직업이 불분명한 시인 지 망생이거나 연중행사로 신촌문예에 낙방한 소설 가들은 해가 지면 이조주촌이나 대동강 막걸리 집으로 스며들었다.

돈 버는 사람, 돈 가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매 일 술을 마셨는지 아리송하다. '저녁은 사치'라고 주장, 안주 없이 깡술을 한 잔이라도 더 마시는데 합의, 나는 술을 전혀 못 먹어 배에서 쪼르륵 소 리가 났다.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매일 모여서 마셨는데 술값은? 마지막까지 남 은 사람이 총대 메고 시계를 잡히거나 윗도리를 벗어 계산했다. '적당히 마셔라' 혀를 끌끌 차며 대동강 아줌마는 외상장부에 적는 둥 마는 둥 했 다. 그 아줌마는 여태 살아 계실까? 신세가 비슷 하면 가난을 깃발 삼아 끼리끼리 뭉친다.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내일이 암울해도 미래 를 걱정하기에는 젊었고 열정과 패기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문인 지망생 김원도를 주축으로 주변 문학 동우회 작품집을 출간했다. 원도는 청춘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고집이다.

시차 극복으로 뒤척이는데, 밤 12시 가까운 시

간에 어둠 속에서 이웃 애들이 공차기로 야단법 석이다. 아이들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지치지도 않고 공놀이를 한다. '헐!' 하고 놀랐다가 슬며시 혼자 웃는다. 내게도 저런 미친 날들이 있었지.

주린 배 움켜쥐고 문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던 그 시절!

추억은 중독성이 강하다. 순수하고 새록해서 머무르고 싶은 순간으로 비행한다. 때늦은 멜랑 콜리로 흩어지는 낙엽에 시름을 묻는다. 늦은 나 이에 샌티멘탈이라니.

'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 지만/(중략)/ 그대 그리워 다시 찾아올 수 있겠 지/나의 슬픈 바다여'

-조정현 '슬픈 바다' 중에서

잊었다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스쳐가는 바 람의 날갯짓이나, 속절없는 세월의 빛바랜 낙엽 이라 해도, 그때 그 시절, 함께 꿈꾸던 약속의 언 어들은 허공과 우주를 넘어 영원토록 그대 곁에 머문다.



# 學者 最外의 登记

# 11-0 = उ र्ष्ट्राम क्षेत्रमार्थ मन्

\$645,000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70,000



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군 , RT267/7, 덜러스 공항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3.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4. 사우스라이딩 타운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 2.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멕 몰/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B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10월 15일 ~ 12월 7일

생명보험, 장기 간호보험, 자동차, 주택, 빌딩, 사업체보험도 비교해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elissa Kang 410-216-1553

#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엘리콧시티 지점

9AM~4PM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27년의 경험과 실력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703) 642-0305 (804) 767-3714 (410) 216-1553 (757) 941-7216

Tidewater/Newport News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마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역 410.480.0100 • 800 564 4400

탄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때, 도때 직판점 MOREAN AIR

🔔 D E L T A



할인 해드립니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동부 투어가이드 , 미승구 구이기이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VIKING RIVER CRUISE

바이킹 크루즈

전문기가 상담해 드립니다!

원더불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 가족여행

## <del>간군</del>(4박5일/2인이상)

**Breathless Cancun Golf** \$2.170+항공(골프 4라운드) **Hyatt Vivid Cancun Golf** 

\$1,550+항공(골프 4라운드) Sandos Cancun Golf

\$2,050+항공(골프 4라운드) \*All Inclusive호텔

# 코스타닌카(4인이상)

4박5일 \$1.400+항공 (골프 2라운드+온천)

5박6일 \$1,540+함공 (골프 3라운드+온천)



로마의 고대 유적부터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운하까지 이태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여행

12/23~12/30 | 7박8일 \$2,490+항공

인도의수도 델리, 타지마할의아그라 핑크시티자이프루, 파테푸르시크리

1/21~2/2/26 | 12박13일 \$3,790+항공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자연풍경을자랑하는 곳!

\$1,990(항공포함) 2/2~2/6 | 4박5일

대자연의 위엄을 품은 아프리카와. 미래도시의화려함을 자랑하는 두바이

3/16~3/23 | 7박8일

10박 11일

11박 12일

13박 14일

2/19~3/6 | 15박16일





2/7/26~2/15/26 8박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로열캐리비안이 독점 운영하는 민간 섬으로, "Perfect Day at CocoCay" 경험을 제공합니다. \* 예약 가능한 케빈이 한정돼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출발, 왕복 라이드 포함

**탑이행사** 크루즈 전문 가이트가 직접 모시고 갑니다. 레크레이션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8/21~8/28 10/28~11/9 7박8일 12박 13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990**+항공 3/22~3/28 | 6박7일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8박 9일

**11/23~11/27** 4박 5일

12/22~12/30

12/23~12/28

2026

12박 13일

16박 17일

10박 11일

4박 5일

01/21~02/02 신비의 인도

02/01~02/11 호주&뉴질랜드

02/02~02/06 코스타리카

\$3899+항공

\$1190+항공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3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319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를 한번에볼수있는이상품놓치지마세요~

3/16~3/28 | 12박13일 \$5.490+항공



≥ 2026년 여행 미리계획하네요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13박 14일 04/29~05/06 7박 8일

7박 8일 10박 11일

10박 11일 05/12~05/22 10박 11일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5~03/03 페루일주 6박 7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9박 10일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299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04/22~05/02 정통서유럽 04/29~05/12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4590+항공 정통 동유럽

05/05~05/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05/05~05/15

05/11~05/21 05/19~05/29

10박 11일 3박 4일 06/09~06/17 8박 9일

10박 11일

오시카 🖁

10박 11일 06/30~07/05 5박 6일 07/01~07/04 3박 4일 07/07~07/17 \$2990+항공 10박 11일 08/01~08/14 13박 14일 08/04~08/14 10박 11일 08/07~08/12 \$2990+항공 5박 6일 08/13~08/19 6박 7일 08/21~08/28 7박 8일 09/04~09/07 3박 4일 09/08~09/18 10박 11일 09/15~09/2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3590+항공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정통 서유럽 06/10~06/20

직접운영합LIC

\$3590+항공

5박6일 \$1899+항공

단풍투천 11/08~11/13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06/16~06/26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3,1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알래스카 크루즈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정통 서유럽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5990+항공 8박 9일 10박 11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0박 11일 \$1690+항공 10박 11일 12박 13일 \$2190+항공(인사이드) 11/10~11/23 13박 14일 11/13~11/23 10박 11일 \$3590+항공 11/25~11/29 4박 5일 12/23~12/28 5박 6일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8일 \$2990+항공 10/01~10/14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2990+항공 7박8일 스페인&포르투갈 10/06~10/16 \$3590+항공 10박 11일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10/13~10/23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3박 14일

10/15~10/28 프랑스 일주 \$56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6차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0~10/29 \$2290+항공 10/27~11/06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10/27~11/06 고품격 고국일주 7차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7~11/06 \$35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28~11/09

\$3490+항공(인사이드),\$3990+항공(오션뷰)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2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 한국관광공사

|0박11일(제주<mark>포함) | **\$2990**+항공</mark>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4차**09/15~09/25** 

5차 10/13~10/23 2차 **05/11~05/21** 6차 10/20~10/30 3차06/16~06/26 7차 10/27~11/06 (영&한)

5.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1차 04/14~04/24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3. 모든 옵션 포함 기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4.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안호텔/여수 소노감/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동경& 동경 오사카 3박4일 | \$1149+항공

3박4일 \$1149+항공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 강릉/속초/제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Together in Korea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10박 11일

10박 11일

13박 14일

09/29~10/12

박7일 한 \$1499+항공/영 \$1699+항공 <sup>3박4일</sup> 서남권 한 \$829+항공/영 \$929+항공 4박<sup>5일</sup> 동해안

한 \$989+항공/영 \$1119+항공 <sup>2박3일</sup> 제주도 한 549+항공/영 \$749+항공 <sup>6박7일</sup> 제주+동해 한 \$1549-항공/영 \$1879-항공

법 전국일주

한 \$2199+항공/영 \$2599+항공

# 동남아 연합투어

\$4590+항공

<sup>3박5일</sup> 방콕/IIFH야\$490+학문 <sup>3박5일</sup> 하노이/하롱베이 \$690+\* 3박5일 다남 \$450+항공 3박5일 나트랑/달랏\$450+\*\*\* 3박4일 [H만 \$690+항공

일본 연합투어 <sup>3박4일</sup> 동경 \$1149 🐯 3박4일 오시카 \$1149+항공

5박6일 동경&오시카\$1899·♥

<sup>3박5일</sup> 싱가폴 \$850+\*\*\*

TMCI 고국건강검진

7박 8일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출발

;욕&천섬 3박4일 \$899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퀘백/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나이아가라폭포옆Hotel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川人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 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러시모어

알래스카

옐로스톤

마운트

6박 7일 \$1640+항공

3박 4일 \$950+항공 매주<mark>월,금출발</mark>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eta 5박6일 \$1300+항공/매주**월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703–333–2005



703-246-9100 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Hanmi Homehealth (한미 홍행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처럼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703)569-0600 5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November 4, 2025

# 마감 1주일 전에는 접수해야 안심

## UC신청 내달 1일 마감

내달 1일이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인 UC시스템과 캘스테이트 시스템의 2026 년 가을학기 신입생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접수 시작은 두 시스템 모두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지원서 작성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두 시스템 모두 대규모 인원이 지원하므로 접수 전에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엄청난 숫자가 신청 지원을 하다보니 UC와 캘스테이트 모두 마감일에 맞 춰 지원하는 것보다 최소한 1주일은 먼 저 지원해야 하는 것이 좋다. 개인 정보 와 캠퍼스별 지원 학과, 심지어는 크레 딧카드 번호까지 모두 입력하고 제출 (submit) 버튼을 누르는데 접수가 안된 다. 확실한 것은 UC온라인 시스템의 오 류는 아니었다. 무엇이 온라인 접수를 막고 있는 것인가. 이미 지원서 요약을 프린트해서 봤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잠시 동안 고교 카운슬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로 고민하던 시점 에서 원인을 찾았다. 고교 수강 과목의 UC과목 분류를 잘못했던 것이다. 해프 닝으로 끝났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 슴을 쓸어내릴 수 밖에 없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필수 과목을 빼먹은 것은 아닌 가. 물론 그런 일은 드물다. 고교 카운 슬러가 계속 챙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더라도 마감 당일이었다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었다. UC가 한꺼번에 접수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UC이외 공사립 대학들은 공통지원 서(common app)를 통해 대학별로 접 수한다.



UC계열 주립대학의 맏형 격인 UC버클리의 중앙도서관.

# UC GPA는 10~11학년 성적 가주 출신 상위 9%내면 합격 3개 캠퍼스엔 전공 고려 없어

## ◈ 접수에 필요한 것

UC 신입생 지원서 접수가 지난 10월1 일부터 시작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마 감일인 내달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 어도 1주일 전에는 접수하는 것이 좋다"

고조언한다. UC지원은 고교 성적이 UC기준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지원 최소 요건은 가주 거주 학생은 A-G 15개 과목 영역 을 이수하되 UC GPA(10~11학년 성적) 이 3.0점 이상, 타주 및 외국인 학생은 최소 3.4점이어야 한다. 이외 전학년 성 적표, AP시험 점수 기록, 개인 또는 부 모의 연소득,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 민권자 여부 등 신분 상태 정보가 필요

고교 졸업 필수과목인 'A-G'과정을

C학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UC 지 원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과 과정은 A: 역사/사회학 2년, B: 영어 4년, C: 수 학 3년, D: 실험실 과학(과학) 2년, E: 외국어 2년, F: 시각&공연예술 연주 1 년, G: 대학 준비용 선택과목 1년을 충 족해야 한다.

## ◈ 꼼꼼히 읽고 오탈자 주의해야

UC지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 는데, 제출하기 전 서류를 먼저 프린트 해서 읽어보는 것이 좋다. 하나의 지원 서가 9개 캠퍼스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 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오탈자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UC계 9개 캠퍼스의 지원서는 하나지 만 학교별로 지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같은 UC지만 전공과 입학 사정 기 준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 포괄적 심사 방식

UC의 신입생 심사 과정은 '포괄적

심사(Comprehensive Review)' 방식 이다. 각 캠퍼스는 입학 지원서에 입 력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 업 및 개인 성취도를 평가한다. 학생 개 인의 기록을 통해 학교 성적과 학년 랭 킹 뿐 아니라 학교 수업 외에서의 리더 십, 지적 호기심, 창의력 등도 파악한다

. 이런 결과는 UC의 엄격하고 어려운 학업 환경에서 지원자가 성공적으로 공 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다. 지원서는 1명 이상의 평가자가 12개 의 항목에 대해 상세히 평가한다. 에세 이에 해당하는 PIQ(Personal Insight Questions)는 8문항중 4문항을 선택 하며 문항당 350단어내로 작성해야 한 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캠퍼스마다 전공이 다르므로 원하는 전공을 잘못 넣을 경우, 엉뚱한 전공을 지원하는 지 원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C공통 PIQ에 답하면서 전공을 썼는데 막상지 원한 캠퍼스에는 관련 학과나 전공이 없는 경우가 있다.

### ◈ 캠퍼스별 고려사항

캠퍼스마다 제공하는 전공이 다르므 로 전공-캠퍼스 매칭을 사전에 확인해 야한다.

▶UC 버클리=지원자의 성과에 주목 한다. 성적과 과외 활동을 우선해서 살 핀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한 지원자 를 고려한다. 또한 버클리의 교육을 받 고 사회 변화에 공헌할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 공대 중에서 전자공학은 경 쟁이 치열하여 합격률이 다른 공학 전 공보다 훨씬 낮다. 문리대는 신입생 지 원서를 심사할 때 전공 선택 여부는 고 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학, 환경 및 공학은 지원자가 선택한 전공이 중요하

»2면 'UC신청 내달 1일 마감'으로 계속





품집한 상품 및 1000불 상금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sup>fl</sup>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917.359.1578





## 세 라 젬과 함께 하는 10월 건강 혁신 - 척추와 혈액 순환을 위한 특별한 선택! **CERAGEM**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 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놀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 "라이프케어등 3개 분야 특화 … 웰에이징 글로벌대학 목표"

## 윤재웅 동국대 총장

"조선대는 초고령화에 대비한 웰에이 징(Well-Aging) 분야에서 세계적 수 준의 빅데이터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자체, 기업 등과 의 지(地)-산(産)-학(學) 협력을 통해 전공과 융합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 교 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대는 지난 79년 간 호남을 대표해온 거점대학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글로컬(Glocal)대 학 30' 사업 선정 과정에서 초고령화라 는 전 세계적 과제를 국가 프로젝트로 부각시키고, 지역의 성장·발전을 이끄 는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 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정부가 심 사를 통해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총장은 "조선대는 웰에이징에 기 반을 둔 '바이오 메디', '에이지 테크', '라이프케어'의 3대 특성화대학을 중 심으로 전공 과목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문 간 장벽을 허무는 대학의 대전환을 주도해가겠 다"고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김 총장 과 조선대 총장실에서 나는 일문일답.

### -'웰에이징'을 대학 특화분야로 꼽고 있 는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미 래 비전을 '웰에이징 아시아(Asia) 넘 버원 대학'으로 설정했다. 웰에이징 특 화 인재 1만명 양성을 비롯해 200개 기 업의 창업·유치, 외국 유학생 유치·교류 5000명 달성을 목표로 문제 해결 중심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의 강점인 웰에이징을 특화한 대학 구축과 지·산·학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진 조선대]

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웰에 이징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학으 로만들어가겠다."

## -조선대의 웰에이징 분야 강점은.

"생명과학과 임상의학, 바이오자원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실증 기반을 갖췄다. 노인성 질환의 경우 13년간 축 적된 2만2000여 명의 장기추적 데이터 가 구축된 상태다. 정밀의료 데이터 분 야로는 세계 4위, 아시아 1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규모다. 첨단신약 개발용 펩 타이드(peptide) 데이터도 800종을 보 유하고 있어 신약개발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신약개발 펩타이드의 경우

임상의학 등 데이터 13년 축적 웰에이징 전문인재 1만명 육성 신약용 펩타이드 특허도 106건

2027년까지 조선간호대와 통합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인력 양성

국제특허 45건을 비롯해 총 106건의 특 허를 보유한 것도 조선대의 강점이다. 세계 최초로 해조류 유전체 데이터를 180종, 2400여 점을 구축했으며, 이중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39건 을등록한상태다."

## -3대 특성화 대학이란.

"웰에징이란 공동의 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융합해가는 교육체계다. 향후 '바이오 메디', '에이 지 테크', '라이프 케어' 등 3개 특성화 대학을 구축해 기존 13개 단과대 등과 의 학문 간 장벽이 없는 교육이 이뤄진 다. 바이오메디는 노인성 치매와 펩타 이드 등 조선대가 축적해온 임상 빅데 이터와 기초의학 연구 등을 연계해 건 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분야다. 에이지 테크는 AI(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진 단·관리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등을 접목한 첨단기술 영역이다. 라이 프 케어는 건강생활 서비스와 복지정 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 는복지모델을 구축하는분야다."

-3대 특화대학의 교육 과정은.

"데이터 기반의 실증모델을 토대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 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융 합 혁신교육 모델이다. 교육과정은 융 합전공(36학점), 부전공(21학점), 마이 크로 디그리(12학점), 나노 디그리(9학 점) 등 학생 스스로 설계가 가능한 학 위 이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컨대 바 이오헬스 전공 학생이 고령 친화적 주 거설계나 돌봄정책과 같은 분야를 선 택해 융합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 는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최대 한 살리면서도 실증에 기반을 둔 융합 형 인재를 길러내는 조선대만의 혁신 교육모델이 될 것이다."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와 통합도 관

"글로컬대학 30' 선정을 앞두고 조

선간호대, 조선이공대와의 통합을 추 진해왔다. 조선대는 오는 2027년 조선 간호대와 통합하면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간호대학을 구축하게 된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AI 기반의 보건의료 산업으로 확장되 는 미래 시장에서 조선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조선간호대와 조선 이공대까지 아우르는 통합 캠퍼스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총괄 총장제'가 도

### -글로벌 대학의 도약 청사진은.

"'웰에이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육·연구·산업의 삼각축을 세계 무대 로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베트 남·몽골의 해외거점 센터와 중국 원저 우(温州)에 신설할 '웰에이징 프리스 쿨'에서는 외국인들의 선학점 이수과 정이 진행된다.

3대 특성화 분야의 외국인 인력 양 성과 취업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유학 생 과정이다. 미국의 보스턴 의과대학 과는 상호 연구소를 설치해 글로벌 공 동 연구도 추진한다. 국제 협력 기반의 웰에이징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동남아 의 고령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경호 기자

김춘성 총장=조선대 유전자과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 네소타주립대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했다. 2009년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로 부 임한 후 조선대 링크3.0(LINC3.0) 사업단 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23년 11월 조선대 총장에 취임했다.

## ▶1면 'UC신청 내달 1일 마감'에서 계속

또한 이들 전공 지원자의 수학 수준을 고려한다. 합격률은 11%이고 타주 학 생은 8~10%정도다.

▶UCLA=UCLA는 학교 성적에 관 심을 갖고 있다. 경쟁률이 심해서 성적 이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인문대에 지 원하는 신입생은 전공 선택이 무의미 하다.

그러나 공대 지원자는 고교 과정에 서 수학, 과학에 얼마반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해 입학 결정에 활용한 다. 미술대와 건축대, 연극·영화·방송 학 전공을 지원하면 특별한 재능을 보 여주는 오디션이나 포트폴리오를 통 해 입학이 결정된다. 합격률은 2024년 9%, 2025년은 9.4%로 기록됐다.

**▶UC 샌디에이고=**UC샌디에이고는 8개 단과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

은 마치 영국 옥스포드 대학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테마, 필수 교양과목 종 류, 전통, 구성원이 다르다. 총 3곳까지 지망할 수 있다. 물론 지망 순서와 합격 가능성은 무관하다. 또한 샌디에이고 는 정원제한(capped) 전공이 있다. 하 지만 합격 가능성은 정원 제한 전공이 아닌 전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달라지 지 않는다. 전공 미결정(undecided)으 로합격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지원자는 전공에 상 관없이 심사하게 된다. 샌디에이고 입 학처는 선수 과정을 요구하는 전공으 로 공학, 물리학, 인간개발학(Human Development)을 소개하고 있다. 또 프리메드 지원자는 지원시 전공을 명 확히하는게좋다.

음악, 연극 및 댄스, 시각예술과 같 은 예술계열과 인문대 지원자는 자신 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나 오디션 테이프, 또는 작문 샘플 등 을 제출할 수 있다. 학과를 정하지 않 은 채 지원해도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 능하다.

▶UC 샌타바버러=문리대 지원서는 단과대학에서 직접 심사를 하지만 전 공 선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음악 및 무용과는 1월 말 또는 2월초에 실시되는 오디션에 응해야 한다. 일부 경쟁이 치열한 전공은 3.4이상을 요구 한다. 전공을 명시한 공대와 컴퓨터 사 요하다.

▶UC 데이비스=농업환경대·생물학· 공대와 인문, 미술과 문화연구학, 수학 과 물리학, 사회학을 포함한 문리대는 단과 대학별로 지원서를 심사한다. 전 공 미결정으로 지원했어도 소속 단과 대학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UC 어바인=UC어바인은 발레, 현

대, 재즈 무용 전공 지망자는 늦어도 1 월이나 2월 초에 교수진으로 구성된 오 디션을 치러야 한다. 음악도 악기나 성 악에 상관없이 오디션을 치러야 한다. 컴퓨터 사이언스 및 공학 지원자는 고 교 수학 4년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프 리 캘큘러스(pre-calculus) 수강과 화 학, 물리를 각각 1년 씩 마쳐야 한다. 프로그래밍 과목도 한 학기 수강할 것 을 권하고 있다.

▶UC 샌타크루즈=UC지원 자격이 모두 있어도 바스킨 공대 지원자는 고 교 GPA, 수학 및 과학 과목, 에세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 한다. 반면 지원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 이 특별했거나 특별한 재능, 커뮤니티 공헌도가 높은 지원자의 경우 UC 지 원 자격이 다소 미달돼도 합격할 수 있 다. 지원서에 기재한 전공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UC 리버사이드=입학 심사에서 전 공과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UC 머시드=입학 심사에서 전공 과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 ◈ 2026학년 가을학기 신규 전공

**▶UC 버클리=**Climate Systems Science, Korean Language and Culture(이상 문리대),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이상공

▶UC 샌디에이고=기후 및 환경 건강 집중 트랙(Public Health: Climate & Environmental Health)'을 공공보건 전공내에 신설.

▶UC 데이비스=Business(BA) 2년 차, 2027년부터는 편입도.

▶UC 어바인=Music 확대

글·사진=장병희 객원기자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 오래가는 임플란트"

natura

dent

잇몸지료 - 지아교정 Surgery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신경치료 Root Canal Emergency Veneer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T. 703-652-4265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VA, MD, DC 면허 소지

\*임상경력 50년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1 지난달 31일 인도 델리 야쇼부미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e스포츠 대회 'BMIC 2025'에 설치된 체험 부스 '챌린저 존'에서 팬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2 경기 관람 중인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크래프톤]

# 폰으로 뭐해? 배그요 … 이런 인도인 벌써 2.4억명



인도 게이머 스마트폰 확산 주목 '모바일 배그' 출시, 시장 1위 꿰차 요금제 등 현지 맞춤형 전략 위력 e스포츠 대회 동시 시청자 40만명

지난달 31일 인도 델리 야쇼부미 컨 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e스포츠 대회 'BMIC 2025', 인도(8개팀)·한국(4개 팀)·일본(4개팀)에서 출전한 16개팀 선 수들 손엔 키보드·마우스가 아닌 스마 트폰이 들려있다.

이들이 4명씩 팀을 이뤄 실력을 겨 른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다. 한국어·영어· 일본어·힌디어 등 4개 국어로 중계되 는 이 대회 동시시청자 수는 40만명을 넘겼다.

크래프톤이 인도에 서비스 중인 게 임 BGMI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글로벌 히트 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를 현지에 맞게 최적화한 다음 2021년 7월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이 후 줄곧 인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2억4000만명 을 돌파했다. 인도 최초 TV 생중계 e 스포츠 대회(BGMS 2022)에 선정되기 도했다

인도 IT업계에선 BGMI의 성공 비 결에 대해 철저한 현지화 성과로 설명 한다. 지난달 30일 크래프톤 델리 오피 스에서 만난 결제·충전 서비스 플랫폼 유니핀의 악셰 세티 남아시아지역 총 괄은 "인도게임이용자 당월 평균결 제금액이 3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 해, 크래프톤은 이용자 최소 구매단위 를 1달러로 제공하는 등 현지 맞춤형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말했다. 인 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 자회 사인 지오게임즈 아베이 샤르마 e스포 츠사업총괄은 "인도최초로통신업체 와 게임업체 간 협업을 통해 BGMI 스 킨이 포함된 독자 요금제(지오 게이밍 팩)를 출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 고말했다.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가 는 것도 크래프톤식 현지화 주요 전략 이다. 시다르트 나라야난 인베스트인

디아 수석부사장은 "크래프톤은 인도 에서 개발자 및 스타트업과 협업하면 서 인도 시장 본질을 이해했고, 코로나 19 이후 젊은 세대에게 스마트폰 보급 이 확산되는 타이밍에 맞춰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크래프톤이 인도에서 출시 하는 '리얼 크리켓' 역시 현지화 전략 이 담긴 게임이다. 지난 5월 1375만 달 러(약 202억원)를 들여 인수한 인도 게 임사 '노틸러스 모바일'이 제작하고 있

고, 인도의 국민 스포츠 크리켓을 소재 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인도에 진출하는 타 기업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있다.

지난달 31일 주인도대사관에서 만 난 이성호 대사는 "인도 경제는 최근 일본을 제쳐 세계 4위로 올라섰다"며 "크래프톤은 인도에 녹아들어가는 스 타일로 시장에 안착해 인상적"이라고

델리(인도)=정용환 기자

# 대학 대신 블루칼라 직업 선호

# Z세대 57% 학자금 부채 부담 AI 확산으로 화이트칼라 위축 용접·배관공 등 기술직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 이 가속화되면서 블루칼라 직업이 대 학 미진학자의 대안에서 미래 대비형 커리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BS뉴스는 "전기·배관·용 접·HVAC(냉난방) 등 숙련 기술직이 대학 대신 주목받고 있으며 AI가 사무 직을 잠식하면서 청년층의 블루칼라 이동이 뚜렷하다"고 최근 전했다.

현장업무 소프트웨어 업체 조버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의 57%가 학자금 부채를 대학 진학의 주 요부담으로 꼽았고 77%는 'AI로 대체 하기 어려운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고 답했다. 이들은 목수, 배관공, 전 기기사 등 현장 직종을 안전한 직업으

로 인식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데이터 분석· 회계 등은 자동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직 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있다 고 설명한다. 애리조나주 파이프 보수 업체 어드밴티지 릴라인의 데이비드 아세이 대표는 "젊은층 사이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멋진 기술을 배 워 좋은 경력을 쌓는다는 인식으로 바

대학 학비 부담은 이러한 흐름을 가 속화하고 있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 브(EDI)에 따르면 대학 연평균 학비와 기숙사비는 3만8000달러를 넘어섰고 사립대는 6만 달러에 육박한다. 대출이 자와 학업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까지 고려하면 학사 학위 취득 총비용은 50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AI 확산은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불 러왔다. 23~27세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 은 4.6%로 2019년 3.2%에서 상승했다. 같은 연령대 비대졸자의 실업률 증가 는 0.5% 수준에 그쳤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를 AI가 초급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초기 신호 로 해석한다.

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오렌지카운티 솔라의 비니 커시 최고 경영자(CEO)는 "AI가 영업·프로젝트 관리 업무는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설 치업무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최근 현 장직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도 용접 건설 자동차 정비 과정의 등록 수요가 정원을 초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기술직 진출 이 단순 고용을 넘어 창업과 장기적 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구 건조증 치료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Dry Eyes Therapy

# 챗GPT발 고용 재편 청년 일자리 21만개 줄 때 50대 채용은 되레 늘어

인공지능(AI) 확산 3년 만에 세대별 고 용의 희비가 갈렸다. 청년층 일자리는 줄었지만,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핵심 이유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력 과 경험이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 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연공편향 기술변화를 중심으로(오삼일·한진수)' 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 년간 정년증(15~29세)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이 중 98.6%가 AI에 많 이 노출된 업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늘었는데, 그 가운데 69.9%가 AI 고노출 업종으 로분류됐다.

를 활용하고 있고, 업무용으로 봐도 51.8%에 달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

팀장은 "AI는 주니어가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이 필요 한 업무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한다" 며 "반면 시니어의 경력에 기반한 '암 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 협업이 나 조직 관리, 대인관계 등이 필요한 업 무는 AI가 보완적으로 작동했다"고 설 명했다. 한은은 국민연금 가입자 1600 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청년 고용 감소가 가장 컸던 분야 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관리업 (11.2%)과 정보서비스업(23.8%), 출판 업(20.4%), 법률·회계·광고와 같은 전 문서비스업(8.8%) 등이었다. 반면 보건 업·교육서비스업·항공운송업 등은 청 년 고용이 덜 감소했다. AI를 자주 쓰 현재 국내 근로자의 63.5%가 AI 더라도 사람의 관리와 판단, 상호작용 이 필요한 업무 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는 걸로 해석된다. 박유미 기자

타이슨스 코너 (C) DC Eye Clinic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정기적인 눈 검사

사종 보험 적용 됩니다 Routine Eye Exam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 셀러미 히스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챈틸리 as ls 급매

**\$300,000** (임대 \$1,800)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帅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XILIO / 703-863-0321

## 대입 들여다보기

## 빈센트 김 /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대학 입시에서 '관심 표명 (Demonstrated Interest)'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캠퍼스 방 문, 이메일 소통, 입학 설명회 참여, 심 지어 SNS 팔로우까지 - 학생이 특정 대학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 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개념 은 이제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 실제 합격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됐다.

입학 사정관들은 매년 5월 1일까지 등록 목표 인원을 맞추기 위한 막대한 압박을 받는다.

교육전문사이트 Inside Higher Ed 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71%가 "목표 등록 인원 충족"에 대해 중간 이상으로 우려하고 있었으며, 실 제로 7월 1일까지 등록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 사정관들의 고민은 명 확하다.

단순히 '합격시킬 만한 학생'이 아 니라 '합격 후 실제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골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일드율'(합격생 등록률)을 끊 임없이 분석하며, 이 수치를 안정적으

# '보이지 않는 관심도' 가 합격 좌우 대학 입학사정, 열의·등록률 본다

로 높이기 위해 학생의 관심도를 유심 히 살핀다. 결국 관심도 표시는 입학 사 정관에게 "나는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 하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되는 셈이다.

대학마다 입학 과정에서 관심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Common Data Set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관심도가 '매우 중 요(very important)'부터 '고려하지 않 음(not considered)'까지 네 단계로 분 류된다.

전미대학입학상담협회(NACAC)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 중 16%는 관 심도를 "매우 중요", 28%는 "중요"하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뷰(13%)나 학년 석차(28%)보다 더 높은 수치다. 즉, 많은 대학에서 관심도는 성적이나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

것이다. 다만 모든 대학이 관심도를 평 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MIT, 스 탠퍼드, 듀크 등 초경쟁 대학들은 지원 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관심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이들 학교는 합격 통보만 하면 대부 분의 학생이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심도 평가가 불필요하다. 반면, 지원 자 풀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합격생들 의 등록 여부가 유동적인 다수의 중·상 위권 대학에서는 관심도 표시가 합격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명문 주립대나 중상위권 사립대에서는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결정적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관심도는 캠 퍼스를 방문하거나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안내 페이지

에서 학생이 관심 있는 전공, 프로그램, 클럽 등을 선택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 게 한다.

이때 입력한 정보는 입학 사정관에 게 그대로 전달된다. 일부 대학은 뉴스 레터 이메일 내 클릭 이력까지 추적한 다. 따라서 단순히 메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메일 속 링크를 클릭해 학과 정 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의 약 60%가 대학의 SNS 계정을 팔로우 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경험이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이 가장 활발했다. SNS 상의 상호작용, 팔로우,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 등은 단독으로 입시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입학 사정관이 관심도 점수를 체크할 때 긍 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은 보통 지역별 입학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입학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지역 담당자를 확인한 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해당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현재 대학 입시는 단순히 뛰어난 성 적과 활동 이력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 입학처는 점점 더 '지원자의 열 의'와 '등록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SAT 점수, 비슷한 GPA, 유사한 과외활동을 가진 지원자들 사이에서 대학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 국 "누가 우리 대학을 진심으로 원하는 가"다. 관심도 표시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다. 뉴스레터를 읽고, 링크를 클릭 하고, SNS를 팔로우하고, 담당자에게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일상적인 행동들이다

특히 하버드 같은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관심도'는 그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다. 경쟁이 치열한 지금, 대학이 먼저 기억 하는 지원자가 되는 것 - 그것이 바로 합격의 새로운 공식이다.

### 교장 세라 박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에듀 포스팅

노력은 여전한데, 성적은 왜 떨어질까

지금 미국의 K-12 공교육 자체가 지 난 30년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만큼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전국 학력 평가(NAEP)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읽기 능숙도는 31%, 수학은 36%에 불 과하다고 한다.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결과다. 8학년이 되면 이 비율은 30% 아래로 떨어진다. 코로 나19 기간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 업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은 '배웠다' 는 느낌만 남기고 실제 학습은 놓쳤다. 그 결과 초등 고학년부터 이미 문장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힘이 떨어지고, 수학의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이 통계는 과연 우리 한인 학생들의 현실 과는 얼마큼 연관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학습 손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좋은 성적을 유 지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그건 이제 대학을 가기 선에 거기에 맞는 신 짜 실력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만큼 공부를 하는 양이 늘어나 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요

# 배움의 '질' 이 무너진 K-12 교육의 현실 학습량보다 중요한 건 이해와 사고력

시간과 노력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하다. 한 예로 전국교사자질위원회 보 다"는것이다.

학원도 다니고, 학교 숙제도 빠짐없 이 하지만, 시험을 보면 기대만큼 결과 가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거기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언 어 장벽까지 겹쳐 이런 영향을 두 배로 받는다.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해도, 부모가 대신 도와줄수 없는 경우 가 많다. 한인 부모 중에는 아이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답답함에 과 외 교사를 찾아다니거나. 교사에게 매 일 이메일을 보내지만 좀처럼 문제 해 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학교들은 현재 심각한 교사 부 족사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없 는 임시 교사를 투입하거나, 한 명의 교 즘 대두 되는 문제는 "아이가 투자하는 사가 두세 과목을 동시에 맡는 일이 흔

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양성 대 학원이 초등 수학교육 준비도에서 'F' 등급을 받았다. 즉,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학을 깊이 있게 가 르칠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 업은 "정답만 알려주는 수학"으로 바 뀌고, 아이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 한채흥미를 잃는다. 교사가 자주 바뀌 거나 자격이 미비한 대체교사가 수업 을 맡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개념이 누적되어야 하는 과 목일수록 이 공백은 치명적이다.

▶눈은 열려 있어도 머리는 닫혀 있

눈앞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모든 공 부를 눈으로만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손으로 쓰고 정리하는 모습 을 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생각 을반쯤빼앗기고있다는것을알수있 다. 공부도중 알림이 울리면 바로 끊기 고,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뇌는 긴 글 을 버텨내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고등 학생이 "책을 한 페이지 넘기기도 힘들 다"고 토로했다. 전화기 좀 내려놓으라 는 부모들의 아우성은 실제로 스마트 폰 사용은 수면 부족, 불안감 증가, 집 중력 저하로 이어져 가는 아이들을 구 하기 위한 외침이지만 좀처럼 학생들의 집중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학 생들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한인 가정들은 교육열이 높 좀 나은 형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학생들에게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 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su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마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하시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한 (K Soung)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이자 · 판매자 · 투지자 대상 전략 제공

(AKBFF) - 0W

한국어, 영어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틸랜드 메트로 지역

미국 Realty One Group Capital 미전국 8위 기업

상업용 부동산 경험 · 암티레스토랑 운영 공간 확보, 물류·유통 참고 암대 및 계약 진행

• 한국 스타트업 및 IT,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 · 계약 컨설팅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理划

상업용 및 주가용 부동산 가래 경험 풍부

• 위상편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

한국 기업/개인 대상 미국 사업 회장 및 부동산 전략 지문 가능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 · 매매

주가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 · 임대

•국제 투자자 지원 한국 기업에인 미국 진출 부동산 건설팅

M&A (Wharton School)
 사업 확장 관련 부동산 지문

▶우수성 회복-생각하며 배우는 힘을키워야한다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진짜 공부는 양이 아니라 깊이의 학습이다. 아이의 성취를 높이려면 단순한 반복 대신, 이 해하고 연결하는 공부로 전환해야 한 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째, 짧고 집중적인 학습 루틴이 효과적 인 만큼 매일 20분이라도 한 개념을 깊 이 있게 복습하고, 아이가 스스로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게 하면서 사고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자랄 수 있 는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읽 은 내용을 시각화하는 정리 습관을 기 르도록 한다. 노트나 개념 지도를 활용 해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면 정보가 구 조적으로 머릿속에 남는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우수성의 핵심이 다. 부모는 지시자가 아니라 코치가 되 어, "오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뭐였 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과제를 주 어?"처럼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돌아 고 더 긴 학습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에 보게 도와야 한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수성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생 각하며 배우는 힘을 키우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벡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사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至日时到! 李巴儿是! 子时到到 🧿 위성틴 중앙일보

#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 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 입니다.

#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위치: 알링턴 지역 렌트: \$11,000/월

# 커피 & 샌드위치샵

- 주매출: 약 \$20,000
- 매매가: \$180,000
-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커피·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m²)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넓은 주차장 (104대 수용)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 메메가: \$7.500.000

자연 경관이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면적: 16,000 SF

· OHOH71: \$1,500,000

넁동·냉장 창고 매물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 투자용 상가 건물

- · 매매가: \$8,000,000
- · 연 순수약: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첸!

##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해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UEE Cloud Papyrus 대표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설비: 냉동 · 냉장고 완비

리얼타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지원

거주/활동 지역

브로커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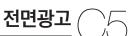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四企







진 료 业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최신형 미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미료보험

- · 목이 뻣뻣한 증상 필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 허리 디스크
- · 허리 통증
-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명승부 펼친 다저스, 월드시리즈 2년 연속 제패

벼랑 끝 최종전서 토론토 눌러 로하스 9회초 극적 동점 홈런 스미스 11회 역전 솔로포 '쾅' 김혜성 연장 11회 2루수 출전

LA 다저스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월드시리즈를 2년 연속 제패했

다저스는 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MLB월드시리즈(7전 4승제) 7차전 토 론토 블루제이스와 원정 경기에서 연 장 11회 접전 끝에 5-4로 이겼다. 이로 써 다저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왕좌를 지켰다.

MLB에서 월드시리즈 2년 연속 우 승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해낸 뉴욕 양키스 이후 다저스가 25년 만이다.

다저스는 3-4로 끌려가던 9회초 1사 후 미겔 로하스가 토론토 마무리 제프 호프먼을 두들겨 솔로 홈런을 때려내 극적으로 동점을 이뤘다.

토론토는 9회말 1사 만루 기회를 살 리지 못했고, 다저스는 연장 11회초 2 사후 윌스미스가 토론토의 셰인 비버 의 3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해 왼쪽 펜 스 너머로 솔로포를 터뜨리고 환호했 다.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마운드로 몰려든 다저스 선수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MLB 월드시리즈 7차전이 연장전까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 시노부는 이날 9회에 구원 등판해 2 %이닝을 무실점 역투하며 올해 월드 시리즈 4승 가운데 홀로 3승을 책임졌 다.

다저스 소속 김혜성은 5-4로 역전한 지 간 것은 2016년 이후 올해가 9년 만 연장 11회말 2루 대수비로 나와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처음 출전했다. 김혜 성은 김병현(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 몬드백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 이 후 21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5차전까지 2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린 려내 앞서갔다.

가운데 6. 7차전 원정 경기를 앞둔 다저 스가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발휘하 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경기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쪽 은 토론토였다. 토론토는 3회말 보비셋 이 다저스 선발 오타니 쇼헤이를 상대 로 가운데 담을 넘기는 3점 홈런을 때

토론토는 선두 타자 조지 스프링어 의 안타와 희생 번트로 1사 2루 기회를 잡았고, 오타니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를 고의 사구로 내보냈다.

그러나 다음 타자 비이 오타니의 초 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월 스리런 홈 런을 터뜨렸다.

다저스도 곧바로 4회초 선두 스미스 의 2루타와 프레디 프리먼의 안타, 맥 스 먼시의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들 었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외야 희 생 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다.

다저스가 6회초 1사 1, 3루에서 한국 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희생 플라이로 2-3으로 추격하자 토론토는 6회말 선 두 타자 어니 클레멘트의 안타와 도루, 히메네스의 2루타로 다시 4-2, 2점 차 를 유지했다.

그러나 다저스는 8회 맥스 먼시의 솔 로 홈런으로 3-4,9회 로하스의 솔로포 로 기어이 4-4 동점을 만들었고 11회에 는 스미스가 5-4 역전 홈런을 때려내며 토론토로 거의 넘어갔던 우승컵을 지 켜냈다.

토론토는 4-4 동점을 허용한 9회말 1사 만루 끝내기 기회를 살리지 못했 고, 4-5로 뒤집힌 11회말 1사 1, 3루에 서는 알레한드로 커크가 병살타를 치 면서 1993년 이후 32년 만의 월드시리 즈정상복귀꿈이 깨졌다.

# 일본의 또다른 야구만화, 투혼의 야마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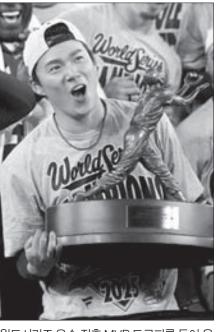
다저스 WS 2연패 주역, 홀로 3승 6차전 승리 뒤 7차전 마무리 역투 "혹사 논란? 벼랑끝 팀 외면 못해"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월드시 리즈(WS) 2연패로 2025년 메이저리그 (MLB)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열전 의 기억은 식어가도 혼신의 역투로 다 저스를 우승시킨 일본인 투수 야마모 토 요시노부(27)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모른다.

아마모토는 최종 7차전까지 간 올해 WS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원정에서만 3승을 거두는 '원맨쇼'를 펼쳤다. 2, 6차전에 선발 등판해 연거푸 승리를 따냈고, 6차전 다음날 열린 7차

전에서는 9회 1사 후 구원투수로 마운 드에 올라 11회까지 2와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다 저스의 4승 중 3승을 자신의 어깨로 만 들어낸 야마모토는 WS 최우수선수 (MVP)로 뽑혔다. 단일 시즌 WS 3승 은 지난 2001년 랜디 존슨(당시 애리조 나다이아몬드백스) 이후 24년 만에 다 시 나온 대기록이다.

다저스는 지난 2023년 겨울 종액 기 준투수역대최고액인 3억2500만달러 (4649억원)를 들여 야마모토를 영입했 다. 계약 기간이 무려 12년이었다. 당시 엔 "도박에 가까운 계약"이라는 우려 가 쏟아졌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다저 스 2년 차인 올해 팀의 WS 2연패를 완 성하며 우려의 시선을 싹 지웠다. 6차



월드시리즈 우승 직후 MVP 트로피를 들어 올 리며 환호하는 아마모토.

전에서 96구를 던진 바로 다음 날, 거짓 말처럼 마운드에 다시 올라 34개의 공 을 던진 야마모토의 투혼에 팬들은 진 한 감동을 경험했다.

터뷰에서 "미국에 건너온 뒤로 야구 를 제대로 즐긴 적이 없다"며 "내 가치 와 몸값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머릿속을 짓눌렀다"고 고백했다. 이어 "(WS 7차전에서) 불펜에 있는 것만으 로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문 득 정신을 차려보니 마운드에 올라와 있었다"며 "마지막에 무슨 공을 던졌 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걸 쏟아붓 는다는 각오로 투구 하나하나에 전력 을 다했다.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AFP=연합뉴스] 행복하다"고 말했다.

야먀모토는 "패배하면 모든 걸 잃는 벼랑 끝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구를 처음 시작하던 '야구 소년 야마 모토'를 다시 만났다"며 "메이저리그 아마모토는 WS 우승 직후 NHK 인 는커녕 일본 프로야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던 그 소년이 내게 '영웅? 구세주? 그딴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냥 던져'라 고 외쳤다"고 전했다. 일본 오카야마현 출신인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질 때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울어 '울보'로 통했다. 하 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집념 으로 자기 계발에 매달렸고, 상대적으 로작은 체격(키 1m78cm)에도 최고시 속 159.3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성장했다.

송지훈 기자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정미는 이 송 이상 판매 실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죄고의 가격으로!





#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A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충족을 걸으면 건강과 행득이 함께 찾아 입니다"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企图

571-239-605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П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SILLE)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

#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대표전화: 703-281-966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 재)에서 주일1부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모십니다.

-예배시간:주일1부예배오전8시(연습시 간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차례 있 는특별새벽기도회때 이틀간 반주하셔야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 와사명감이 있는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 한 자기 소개서

-제출처: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청빙시까지

-사례비:교회내규에따름(추후통보,혹시 궁금하신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민형장로:216-870-9234 이메일: leeminhyung7896@gmail.com 김요한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84@gmail.com -교회주소: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 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운전경력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병가/휴가, 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세탁소/이미용/기타

PG 카운티 리쿼스토어 라러리 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구함(금.토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센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 스트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 파타임) 410-961-3012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가능한델리 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엘리곳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

하실분구합니다. 남녀모두 환영 443-991-9331

# 싱글/타운방렌트

조용/교통 편리한위튼도서관,한아름, 메트 로근처싱글홈방하나렌트 아파트식, 뒷문별도, 인터넷, 직장인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저먼타운싱글홈 2층방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주무실분\$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95,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그린벨트지역, 조용하고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301-646-3127

#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꼭관심있는분만연락주시기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a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 VA&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모바일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유경험자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덴탈랩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571-229-038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40k-50k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버스투어가이드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콴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 실웨이츄리스구합니다.(신분확실하시고 영어가능하신분)풀/파타임 443-978-0900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 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구함.유/무경험자환영

703-338-3037

703-258-4356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파타임홀직원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발치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 파타임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7AM) 나이불문, 남자분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파타임으로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화,목,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구인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핸디맨구합니다.(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GMU대학체육관뒤조용한싱글홈전체렌 트합니다.(웃슨하이학군)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조지메이슨 1 마일,패어팩스H마트1.3마일) 703-350-2278

스프링필드싱글홈(애난데일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2,9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qft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타운하우스렌트\$3,300 전체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 션,잘관리된집 2.센터빌타운홈\$3,000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패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최고학군, 29/50/66/286 최고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 콘도 렌트

센터빌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1층 나무가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2,6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콘도\$1.700 방1,화장실1,엔드유닛880sf,넓고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입주가능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703-477-3114

-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화2,2층1100sqft,securitygate ▶571-239-6054

# 방렌트

로튼(애난데일에서 15분거리) 조용한주택 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포함, 출입분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렌트합니다. 방안 에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H마트옆밝고조용한콘도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교통편리 롯데1분한강식당1 분거리,입구별도,주차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 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곳)조용한싱글홈베이스먼트방렌트 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근처조용한동네싱글하우스욕실딸 린큰방하나렌트합니다. 남자분환영,즉시입주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완비,취사가능, 직장인,학생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 트, 나무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별도, 편리한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전체렌트 방1,키친,욕실,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H마트근처싱글홈 1층 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환영\$1,200 즉시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순복음교회앞주택지하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싱글홈반지하방렌트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근처타운하우스마스터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2,000즉시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망)



# 부동산 매매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 화2.5, 차고 1 H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브릿지타운홈\$399,900 방3,화31/2,잘관리된밝고환한집,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창문,히팅&에어컨시스템

▶703-813-8949

메나사스 타운홈 \$445,000 방4,화31/2,엔드유닛,업데이트한부엌과 화장실들, 3층모두나무마루, 워크아웃베 이스먼트,새주방용구들,새HVAC, Granite Countertop, 새페인팅, 새브라인드, 넓은 덱 과펜스

▶703-813-8949

- 1.엘리컷시티싱글홈\$820,000 방4.화2.5
- 2. 콜롬비아 타운홈 \$595,000 방3,화2/2

**▶**301-318-4242/443-668-0453

- 1. 워싱턴 디씨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화장실 3+1,새타운하우스,모던하게 지은예쁜집
- ▶410-417-7080
- 1. 메릴랜드포토맥싱글홈\$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가격
-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없는집
-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화장실 2+2,차고 2,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화장실3+1,차고2
- 13년된 벽돌로지어진고급타운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5.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화장실 3+1,차고 2, 밝고 이쁘게 잘꾸며 진집,넓은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 잘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싱글홈\$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 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유닛, 아주 밝

고이쁘게잘꾸며진집 ▶703-899-8999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LOFT835 sq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Alexandria 콘도\$365,000 방2,화2,TopFloor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화2.5차고1,좋은동네,좋은학군,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화장실3,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 콘도(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 공예정)방3,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새 빌더홈(2025년 완공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단층집으로넓은백야드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703-483-0505

# 사업체 매매

알링턴지역 커피&샌드위치샵매매 주7일영업,주매출약\$20,000,렌트 \$11,000/월, 매매가\$180,000 안정적인고객층을 가진소형 커피, 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703-928-5990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 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절감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좋고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없음\*\*

-6개헤어부스+2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 중고매매/기타

최고급등산장비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 9월 16일(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개인 맞춤레슨 757-338-8496

703-899-8999/410-417-7080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 건축/페인트/마루

손사이딩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703-835-094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주방&욕실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 wani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571-331-6811

# 보험

지금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점검이,내일의차이를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되시는 1960년생신규 가입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융자

로리문 맞춤형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전화: 703-447-4683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단팀보유, 놀라운품질, 저렴한가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703-600-9031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타일,주거용/상업용한번시공은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크리닝, 최상의트럭파워스 팀샴푸,살균,소독,냄새 및 얼룩제거,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폐기물처리 571-982-9871/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8282각종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 -980 -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 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 Door 설치, MD/VA/DC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540-905-2849

#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중앙일보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UNIVERSAL
H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 페인트

#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mark>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 **업 범망애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USA(ATLANTA)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Golden Dew Jewelry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 보 석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 에어컨&이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Huundai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상업용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Office: 571-213-8678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24 hours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A-MD-D.C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 영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 플러맹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우주 Mechanical, LLC

301-222-3277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sup>무료 방문</sup>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 fill (someone) in on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알려줘

(Mary and John are talking to their son Eddie about a new girl in Eddie's class …) (매리와 잔이 아들 에디 반에 전학 온 여학생에 대해 에디와 얘기한다…)

Mary: So fill us in on this new girl in your class. 매리: 그래 네 반에 전학 온 여학생 얘기 좀 봐. Eddie: Her name is Kelly. 에디: 이름은 켈리에요. John: Where is she from? 잔: 어디 살다 왔대니?

Eddie: Her family just moved here from Chicago. 에디: 시카고 살다 가족 모두 이사왔대요.

Mary: So is this love at first sight? 매리: 그래 첫 눈에 반한 거니? Eddie: We had lunch in the cafeteria and we just hit it

에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같이 먹었는데 금새 친해졌어요.

John: Don't rush anything. Take time to get to know her

잔: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갖고 어떤 애인지 차근 차근 알아가야지.

Mary: Your father and I noticed that you've started

wearing nicer clothes to school. 매리: 네 아빠하고 내가 보니까 너 학교갈 때 점잖

은옷을 입기 시작하더라. Eddie: Oh yeah, 에디: 아예.

## 기억할만한 표현

\*love at first sight: 첫 눈에 사랑에 빠지다.

"With my wife and I it was love at first sight." (아내와 나는 첫 눈에 사랑에 빠졌어.) \*hit it off: 금새 친해진다 반하다.

"We hit it off just after a few minutes of talking to each other."

(우린 이야기를 나눈지 몇 분 만에 친해졌어.)

\*Don't rush anything: 서두르지마.

"You met him last week and you're already in love with him? Don't rush anything."

(그 사람을 만난 게 지난 주인데 벌써 사랑에 빠졌 다고? 서두르지 마.)

### <u></u> 낟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가로열쇠

(1)철이 바뀌는 시기. ~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4)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조려 꿀처럼 만든 감미료. 자연산의 꿀을 청(淸)이라 하므로 인공적인 꿀이라는 뜻에서 ~이라 한다 (5)어둠 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음. 확실한 방 법을 모르는 채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함 (8)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9)뼈가 부러지는 부상 (10)매우 사나운 개. ~ 조심 (12) 대학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15)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 들이 많이 따름 (16)야구에서, 투수가 타격을 당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볼을 만드는 일 (19)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긴 막대 기를 끼워 비틀던 형벌 (20)신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불가사의한 일 (22)투수가 완투하여 상대팀 에게 전혀 득점을 주지 않은 승리. 셧아웃 게임 (23)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한 번 구르니 나 무 끝에 아련하고/두 번을 거듭 차니 ~가 발 아 래라/마음의 일만 근심은 바람이 실어가네(김말 봉) (24)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음.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

을 당하게 됨 (26)욕망을 억누름 (27)우물물을 긴는데쓰는기구

### 세로열쇠

(1)실제로 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현 상 (2)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낭떠 러지 (3)아내의 어머니 (4)아침에 도를 들어 깨 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음 (6)심하게 많이 다침 (7)색상을 정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증 상 (11)야구에서, 주자의 도루를 막기 위해 던지 는 공 (13)높은 곳에 올라갈 때 필요하죠 (14)이 를 얻으면 온갖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하는 구슬 (15)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비틀어 뽑아 만든 피리 (17)사사로운 이 익과 욕심 (18)새로 만든 영화를 상영할 기일이 가까이 닥쳐옴 (21)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 는 결손액. ~가 나다 (22)쇠고기를 다져 달걀과 두부, 갖은 양념 따위를 섞고 둥글게 빚어서 기 름에 지진 음식 (25)배를 탐 (26)금분을 이용해 인쇄 표면이나 섬유표면에 고착시키는 것. 세모 시 옥색 치마 ~ 물린 저 댕기가/창공을 차고 나 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 고보더라(금수현)

## 스도쿠

교	₽ ₽	
le	运	
2		=
		-
다	łY	호
łΥ	FY	
	곰	lΥ
ξĀ	조	
호		
	충 사	상 곱 당 사 ┝

8	5	4		7			3	2
7			1	8			4	5
		9	5	4				
6			7		8			9
9		1				5		8
5	7			3		6	2	
3	8	5	4		7		9	6
	2					7	8	
	9	7						3



어 넣어야 합니다.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세출이 스도쿠는 십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3	5	Þ	9	2	8	L	6	ŀ
L	8	L	S	6	3	9	Z	Þ
9	6	2	L	ļ	Þ	S	8	ε
Þ	Z	9	L	3	6	8	L	S
8	L	S	Þ	9	7	L	٤	6
6	L	3	8	S	L	7	Þ	9
L	9	8	3	Þ	S	6	L	S
S	ħ	6	2	8	ı	ε	9	L
7	3	ı	6	L	9	Þ	S	8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① 위싱틴 중앙일보

#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위성틴 중앙일모 구독 <b>신성시</b>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i	<del>선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독로 기</del>	지불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1년 선납 \$150					
	(Subscription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sub>카드퉷던 3</sub> 자리 카드 번호 EXP. DATE: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Ĺ.	* 시청하시 시무은 시청인(구도로 와난기주) 2인 흐브터 배달되며 2인이 지나도 시무이 배달되지 않은 경으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류 박사 공저 Su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基 起** )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 www.worldpay.com

Info@meridianwish.com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30주년

이루어

프로모셔O로

월드페이가 사장님의 꿈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트 뱅크카드와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학장: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Alumni MII,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학장: 아브라함이** (경영학학사, 석사)

30년 프로세싱 경력

koreadailyus.com



##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213)800-3662 (213)407-4524

#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살 <sup>요요없이 빠져요</sup>

기적의 티타<del>늄</del>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소 작 못 이룰 정도로 제긋지긋한 모든통증 **/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전



Tel. 213.385.3304 Cell. 213.50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15/16 대추

(832)605-4890 - (281)501-2623

\$7/16 대추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초

하세요!

: NO 말린 대추 : NO : NO

사용 : NO : NO : NO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숙성된 퇴비를

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0/10LBS-1BOX |\$100/10LBS-1BOX

\$12/lb 대추는 \$15/lb 대<mark>추보다</mark>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u>스카 추가</u>요금

\$12/lb 대추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CORE Physical Therapy&Rehab

# 통증 재활물리지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 목, 허리 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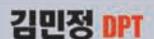


Lee Jackson Memorial Hwy. 28

Walney Rd.

50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언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